

第250回國會
(定期會)

文化觀光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9月8日(水)

場 所 文化觀光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문화재청소관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문화재청소관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
 -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 다. 청소년육성기금
 - 라. 문화예술진흥기금
 - 마. 국민체육진흥기금

審査된案件

- | | |
|----------------------------|---|
|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 1 |
| 가. 문화관광부소관 | |
| 나. 문화재청소관 | |
|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1 |
| 가. 문화관광부소관 | |
| 나. 문화재청소관 | |
|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 | 1 |
|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 |
|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 |
| 다. 청소년육성기금 | |
| 라. 문화예술진흥기금 | |
| 마. 국민체육진흥기금 | |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국회(정기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문화재청소관
2.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가. 문화관광부소관
 - 나. 문화재청소관
3. 2003회계연도기금결산
 - 가. 문화산업진흥기금

1.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나. 관광진흥개발기금
다. 청소년육성기금
라. 문화예술진흥기금
마. 국민체육진흥기금

(10시06분)

○**위원장 이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부·문화재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3회계연도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결산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먼저 문화관광부 결산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소위원회에 회부한 다음 이어서 문화재청의 결산심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방식은 어제와 같이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일괄질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결산심의 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금결산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 관광, 체육, 청소년 등 다양한 우리 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체육의 선진화와 과학화, 건전한 청소년문화의 창달 등에 관한 모든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 전 직원은 2003년도 결산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지난해 업무추진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욱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교 간 이해와 화합을 통하여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범 종교인이 함께 하는 종교예술제, 종교지도자 세미나 등 건전 종교문화 육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고려대장경 전산화,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전통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보편적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국공립 박물관,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등 문화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문화재청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특수언어 표준화 지원 등 균형 잡힌 문화향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국어발전과 한글 우수성 선양을 위해 국어정보 데이터 구축사업인 21세기 세종계획과 사이버한글박물관 구축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셋째, 다양한 문화예술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술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문예진흥원을 민간 문화예술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키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기초예술의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작스튜디오의 조성, 지역문학관의 건립, 소공연장 시설 개선 지원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문학·미술행사와 공연 등 창작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사랑의 티켓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합동으로 대책반을 구성, 문화시설과 학교를 잇는 여러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재외 문화원시설의 개선을 통한 문화홍보인프라를 강화하고 한국문화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소개행사도 적극 전개했습니다.

넷째, 문화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과 영화진흥기금고에 대한 국고 출연으로 문화산업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지방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등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를 개발·육성하고 문화산업 인프라 구

축사업 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난 12월 문화산업정책비전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확대, 문화산업 유통 합리화 및 해외 진출 확충 등 문화산업 5대강국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관광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관광정책 18대 과제를 수립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유치와 국민관광시대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에 노력했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특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는 남해안관광벨트와 경북북부 유교문화권을 지속 개발하고 강원 산악·환동해권 관광개발을 신규 추진하는 등 관광 수용 태세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국, 일본 등 인접 국가에 대한 해외 마케팅을 강화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관광안내체계 개선 등 국민관광 환경조성 사업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여섯째, 중장기적인 체육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지원하여 174개국이라는 사상 최다국 참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이번 아테네올림픽에서 28개 종목 중 24개 종목 경기에 참가하여 총 11개 종목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12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성적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아테네 현장을 방문하여 주시고 선수단을 격려해 주시는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아테네올림픽에서 10위권 진입을 달성했습니다마는 이번 올림픽에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대약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국가의 성과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한 결과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더 늦기 전에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비하여 육상, 수영 등 기초종목과 메달 가능 종목, 스포츠 외교력 강화 등에 대한 특단의 지원

조치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경쟁력을 갖추어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3개 법안의 제·개정을 통해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육성정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참여활동 확대,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 등을 통한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세계화시대에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해 국가 간 청소년 국제교류 확대 및 문화축제 등을 개최하여 21세기를 이끌어갈 진취적인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책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행한 2003년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현액 148억 2000만 원에 수납액은 150억 1900만 원으로 1억 99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한편 세출 부문에서는 당초예산액 1조 1400억 7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835억 8000만 원, 예비비 88억 7900만 원, 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 7600만 원을 합한 1조 2326억 1200만 원이 예산현액이었습니다.

이 중 1조 130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79억 3100만 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9억 41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43억 원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과 자료 구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중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현액 230억 1400만 원에 수납액은 236억 9100만 원으로 6억 77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한편 세출 부문에서는 당초예산액 230억 1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3400만 원, 예비비 2800만 원, 233억 7600만 원이 예산현액이었습니다.

이 중 195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7억 6700만 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8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배포하여 드린 결산개요 및 각 기금별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문화관광부 결산개요를 보고드립니다.

오늘 결산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차관은 현재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실무위원회 참석관계로 오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관보는 공석입니다.

유진룡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보경 종무실장입니다.

이성원 문화정책국장입니다.

위옥환 예술국장입니다.

곽영진 문화산업국장입니다.

김찬 관광국장입니다.

조용남 체육국장입니다.

조현재 청소년국장입니다.

이세섭 공보관입니다.

김태근 감사관입니다.

송용환 예술원 사무국장입니다.

이건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입니다.

이건무 국립중앙박물관장입니다.

남기심 국립국어연구원장입니다.

임병수 국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명곤 국립중앙극장장입니다.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김철호 국립국악원장입니다.

김홍남 국립민속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에는 주요 산하단체 간부들입니다.

현기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입니다.

이충직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용배 예술의전당 사장입니다.

류건 한국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이연택 대한체육회 회장입니다.

이종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엄삼탁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입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김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은 국외출장 중이라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기념관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단체장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선임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지금 정동채 장관님께서 인사말 겸 길게 설명을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 보고를 다시 받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열 때마다 정부부처에서 보조인력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나와 계신데 꼭 필요한 공무원만 남고 돌아가시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신데 꼭 필요한 분만 남도록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현기영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문화관광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문예진흥원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2003년도 사업의 4대 중점방향을 예술적 창조역량 강화, 문화예술 보급활동, 민족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예술의 보존과 계승사업, 문화적 조화와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류사업 지원을 중점목표로 정하고서, 문예진흥기금사업 운영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코자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등 새로운 문화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기금사업 개편 추진,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기금

사업 성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기금제도 개편 및 중장기 재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예산 및 타 기금과 차별화된 기금사업의 정착 운영 등 문예진흥기금사업 추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문예진흥원 전 임직원은 이에 머물지 않고 문예진흥사업 추진에 앞으로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나갈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의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예진흥기금의 조달총액은 1388억 원으로 재산수입이 271억 원, 경상이전수입이 541억 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이 64억 원, 용자금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가 15억 원, 전년도 이월금 442억 원, 조건부기부금 수입이 54억 원입니다.

2003년도 지출내역은 총 1388억 원으로 기금관리 68억 원, 문예진흥기금사업 34억 원, 문예시설 운영 43억 원, 문화예술 진흥 212억 원, 문화예술 교류 및 보존 지원 62억 원, 여유자금 운용 915억 원, 조건부기부금 54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작년 말에 문예진흥기금 모금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가 큰 걱정이었으나 국회에서 적극 도와준 결과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로또복권기금 수익금에서 대체지원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인 업무추진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기획조정실장 한기천** 안녕하십니까?

문예진흥원 한기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원장님이 대략 중요한 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결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진흥기금 수입·지출 실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수입은 저희가 당초 973억을 계획했는데 실제 실적에 있어서는 1387억 원, 142.5%로 4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대부분 전년도 이월금 442억 원이 발생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보통 기금을 쓰고 남은 잔여액이라든지 이월금이 발생하는데 특별히 442억 원의 이월금이 발생된 것은 4500억의 모금을 조기 달성할 경우에 모금이 빨리 폐지될까봐 2001년도하고 2002년도의 현금수지를 2003년도 결산에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이월금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재산수입이 247억에서 271억으로 109% 달성된 것은 저희가 적립금이 5058억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주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수입 중에서는 법정부담금은 모금이 535억으로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 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죽 보시면 재화 및 용역판매 수익은 실적이 653억으로 97%인데 이 부분은 뉴서울골프장에서 57억의 수익이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03년도 결산에는 조건부기부금 수입 53억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출내역입니다.

지출내역도 수입에 맞춰서 당초 계획은 973억인데 실적은 138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비는 주로 인건비하고 선납법인세나 이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66%로 저조하게 나오는 것은 선납법인세를 당초예산에는 지출로 반영해 놓지만 그다음에 돌려받기 때문에 자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집행실적에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기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예진흥기금사업비는 주로 기금조성 관리비가 모금수수료입니다. 모금을 할 경우에 5.5%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 게 2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시설 운영은 당초 계획은 45억인데 41억으로 92%를 달성했는데 예술극장, 마로니에 미술관, 예술정보관, 그다음에 벽체에 있는 연수관 이 4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 진흥하고 문화예술 교류로 해서 270억 정도가 근 5, 6년 동안 문화예술계에 실질적으로 지원되었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로또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2004년도, 2005년도부터는 현장에 있는 예술계가 피부로 느낄 만큼 지원수준이 대폭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운용은 수입과 지출에 대한

현금수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예진흥기금사업을 해 가면서 국회에서 지적되었던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국고와 문예진흥기금사업 간의 중복성 문제가 몇 가지 제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제기되었고 예산처에서 기금평가를 받을 때도 제기되었는데, 그동안 이 부분은 저희가 실제 개선을 못 해 오다가 2005년도에는 문화관광부하고 기획예산처가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한 73억 정도 정부에서 운영하던 중복성 사업이 문예진흥기금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국회에서 지적되었던 중복성 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심의회 대한 투명성과 심의의 공정성 부분은, 2005년도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부터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심의위원뱅크제 같은 것도 공개하고 심의 부분에 있어서는 대폭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지금 기관장님들이 인사도 하시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하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관장님은 그냥 자리에서 인사만 하시고 바로 보고를 기획관리실장이 나와서 하면 시간도 줄어 들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두 분이 따로 따로 나와서 보고할 게 있으니까 오늘 산하기관이 많으니까 좀 조절합시다.

○**위원장 이미경** 지금 1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간략하게 같이 해 주실 수 있으면 또 같이 하시고 그러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안녕하십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이종인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개요를 보고드

리기에 앞서 저희 기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의거, 국민들의 체육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1989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잉여금 등 3521억 원을 기초기금으로 출범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그동안 내실 있는 조성과 운영을 통하여 2003년 말 현재 643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89년부터 2003년까지 체육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총 1조 1655억 원의 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단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육지도자 양성 등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였으며 우리나라 전문체육이 세계 상위권의 경기력을 유지토록 지원하고 2002년 월드컵,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지원하여 성공적 대회 개최와 국민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조직혁신으로 경영 효율화 및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2003년도 경영혁신과제 추진실적평가에서 기획예산처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국민체육 진흥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국회 심의 및 의결을 받는 것을 계기로 가일층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기금조달액은 총 5133억 5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기금운용수입 212억 1500만원, 골프장부가금 301억 1600만 원, 월드컵경기잉여금 550억 원, 복권 및 투자사업 수입 2064억 1600만 원, 경륜·투표권 등 전입금 983억 5200만 원, 융자금 회수 105억 3100만 원 등입니다.

지출내역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지원에 1725억 5900만 원, 체육복권사업에 377억 6000만 원, 체육산업 융자 등 기금조성 융자 307억 9900만 원, 광명경륜장 및 올림픽홀 기금투자에 230억 8600만 원, 사업운영 및 관리비에 440억 5900만 원 등입니다.

수입·지출 실적 세부내역은 유인물 2쪽부터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초 개시기금은 5653억 원이었으나 1년간 운용결과 781억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 6434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주요사업 성과로서 첫째, 체육 분야 공공재원으로서 경륜사업과 복권투표권사업 등에서 수익적·안정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둘째, 전문·생활·학교체육 분야 및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한 지원으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전국에 국민체력센터와 각급 학교에 잔디·우레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셋째,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포츠산업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업체의 용자를 통하여 국내스포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넷째로, 지속적인 조직혁신으로 경영효율화 및 내부역량을 강화하여 2003년도 경영혁신과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2003년도에 1726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으며 당 공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국민체육센터건립, 잔디·우레탄 체육 시설 설치,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개소당 30억 원, 총 13개소로 그 대상지로는 부산 금정구를 비롯한 전국 일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총 109개소를 선정하여 개소당 평균 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25개소, 지방 84개소로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개소당 약 2000~3000만 원 내외로 94개소에 총 1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전문체육 육성을 위하여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385억 원을 지원하여 국위선양 및 남북화해협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지원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지원사업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성과와 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기금조성을 위한 경륜사업은 매출액이 경제

적·사회적 여건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1조 8699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경륜사업 총 수익금 1355억 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542억 원, 청소년육성기금에 406억 원, 중소기업진흥 및산업기반기금에 237억 원, 지방재정에 136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경륜·경정클리닉센터 개원으로 몰입 고객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여 경륜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정사업입니다.

경정사업은 2002년 6월 사업을 개시하여 2003년도 매출액이 3266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07년도부터 수익금 배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2003년 6월부터 재발매를 시작하여 2003년도에 283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2004년도부터는 야구, 골프 등 대상종목의 확대로 매출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복권사업입니다.

체육복권은 로또복권의 출현으로 판매액이 전년 대비 48.8%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는 복권및복권기금법의 시행으로 국무조정실 복권위원회로 사업이 이관되었으며 복권수익금 중 30%만 참여기관에 배분되며 이 가운데 당 기금에는 12.1%가 배분될 예정입니다.

기타 기금조성사업으로 예치금운용에서 305억 원의 운용수익을 달성하였으며 회원제골프장 부가금으로 30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국내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3년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코엑스에서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스포츠용품 182개 업체가 참가하여 약 2만 명이 참관함으로써 국내 스포츠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킨 바 있으며,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및 체육시설업체의 설비자금, 연구개발자금으로 113억 원을 융자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스포츠산업 분야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하여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자, 공동체육시설 관리자 등 380명을 양성하여 국내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당 공단은 지속적인 조직혁신으로 경영효율화 및 내부역량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한 1등 공기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경영

성과업적 평가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 향후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해 공단의 설립 목적인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견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 반납액 중 사업취소에 따른 반납액이 전체 반납액의 56%인 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사전에 보조사업의 타당성·적정여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유무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도서관, 공립박물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지자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지자체가 부담하여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47%의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고 지역별·장르별로 특화된 문화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공사기간 부족과 보조금의 연도 말 교부로 인하여 예산현액 460억 원 중 295억 원을 이월하는 등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 및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관광자원 개발 사업이 토지매입·민자유치 곤란, 잦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문화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부담능력 유무, 사업의 시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사업 규모를 재조정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방식을 통해 사업 전반에 걸쳐 과감한 정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은 국고 165억 원을 투입하여 9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사업주체인 한국예총이 자체재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99년 이래 공사가 중단된 사업으로 정부는 2003년 5월 말까지 공사를 재개한다는 조건을 붙여 5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총이 2003년 5월 말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추가 보조금 50억 원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환수하지 않고 2004년 10월 말까지 공사기한을 연장하고 있는바, 정부는 더 이상 동 사업을 방치·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분명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넷째, 98년에 설립된 서울영상벤처센터는 2003년 3월 폐지 당시 벤처지정업체는 4개에 불과하고 영화사는 1개도 없는 등 벤처센터로서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된바, 이는 동 센터 건립 당시 합리적인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로서 그동안 지원된 45억 6000만 원과 철거비용 4억 6000만 원이 낭비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집행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은 매년 사업비, 인건비, 경상관리비를 지원받는다, 인건비가 부족하여 타 사업비에서 충당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이 그만큼 부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게임산업개발원의 경우 지원사업 중 우수게임 사전제작 지원사업과 현지화 지원사업 중 일부 분야는 총 제작비 중 지원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지원이 미미한바, 지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한국관광공사의 주요수입 재원인 공항면세점 운영 수입이 전년 대비 41%나 급감하여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는바,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출액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관광공사의 주요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350억 원을 지원함과 아울러 주요사업비 부족분을 국고 또는 기금에서 개별 보조사업의 형태로 중복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공사에 대한 보조금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고 관광공사 보조금에 대한 국회의 예

산 심의·의결권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관광공사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예산은 하나의 항목에 통합하여 편성·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광공사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생활체육공원, 지방운동장, 지방체육관 등 지방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184억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는 예산편성 시 공사 소요기간을 정확히 산출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문화관광부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지, 사업이 필요한지 등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 조사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문화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박물관의 경우 전국 12개 박물관 중 8개 박물관에서 유료 관람객이 감소하여 박물관 세입감소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중앙극장은 기업회계 계정과목의 재분류 등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립중앙극장은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회계전문가에게 작성된 재무제표를 검토하게 하는 등 중전의 회계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부의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과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5개 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 각 기금들이 여유자금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문화관광부 소관의 기금들이 적립성 기금이 아닌 사업성 기금이라는 점에서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금과 국고가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부

분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하여 국고 350억 원 지원 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서울공연예술제 등 각종 예술행사에 대하여 문예진흥기금과 국고에서 중복하여 지원하였는데, 이는 단일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규모 파악과 국회의 예산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각 기금은 설치목적대로 특정한 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기금사업의 차별화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기금사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금 투융자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이는 시중대출금리의 하락과 물적 담보 능력의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시중금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변동금리제도와 프로젝트나 기술력 등 신용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예진흥기금은 2003년도 말 기준으로 5058억 원을 적립하고 있으나 그동안 기금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모금제도가 2004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기금의 신규조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복권기금에서 기금사업비가 전입됨에 따라 대폭 증가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한편 기금의 지원방식에 있어서 기금지원의 실효성 저하와 나눠 먹기 식의 배분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소액다건주의방식을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방식의 확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화산업진흥기금은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외형적인 실적증가에만 치중한 나머지 융자대상 선정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질적인 심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수입 재원인 경륜사업의 경우 경기침체, 로또복권 등의 유사 상품과의 경쟁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는데, 경륜사업을 비롯한 여타 기금 수익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말씀하세요.

○**박형준 위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 검토보고서를 검토하는 가운데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어서,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적합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면이 있겠지만 금년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대개 작년보고서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또 몇몇 부분에서는 2002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짜집기한 형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서 예술인회관 건립 중단 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문제인데 예총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팔로우업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경우도 있고 부산국립국악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기획예산처의 수정된 부산국악원 건립사업 내용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업기간 자체가 2007년으로 연장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검토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등, 또 오늘 보고서에 붙여놨던데 경륜·경정사업 부분은 평가나 분석과 관련해서 수치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실제로 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굉장히 의존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입법조사관이나 전문위원들께서 노력을 배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알겠습니다.

제가 8월 18일 부임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과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이어서 문화관광부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정수장학회 관련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7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결코 정략적으로 이것을 이용해 보거나 특정인을 흠집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과거의 잘못된 언론을 바로잡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정수장학회가 강제로 빼앗았던 언론사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MBC와 부산일보 주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의 정동사옥 땅 700여 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수장학회의 현주소는 경향신문사 빌딩 11층에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대한 강탈수법은 MBC와 부산일보를 빼앗을 때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경향신문 소유주 이준구 사장을 1965년 8월 간첩죄로 구속시키고 상대적으로 경영상태가 좋은 경향신문을 경매처리를 했습니다. 다른 신문과 비교해서 경영상태가 좋았던 경향신문의 이자반환을 고의적으로 받지 않아서 불량채무자로 만든 뒤에 경매처분을 하는 수법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당시 정권은 산업은행 관리기업으로 신문 경영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기아산업을 내세워서 경향신문을 부당하게 인수한 뒤 5·16장학회, 지금의 정수장학회가 소유하게 하였습니다.

정수장학회는 참으로 방송과 신문 전 영역에서 언론사 강탈과 탄압의 상징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정수장학회가 서울 MBC와 부산일보뿐만 아니라 경향신문을 약탈한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정수장학회 문제를 명확히 답변드린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사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웅래 위원** 소관이 아니라는 건 무슨 얘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해서……

○**노웅래 위원** 언론사가 강제로 특정권력에 의해서 빼앗기는 사태가 났다면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언론사와 관련돼 있다고 하지만 방금 노웅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논란이 진행되고 있고, 또 강탈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률적 판단이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매우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논란을 빚고 있다면 정부가, 지금 과거사에 대해서 분명히 청산할 건 청산하고 매듭지을 건 매듭지어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 관련 과거사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과거사 규명 문제라 할지 이런 문제도 국회에서 적절한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정수장학회와 관련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탈된 정수장학회의 이사장이 지금 야당의 대표로 있다는 것입니다.

정수장학회가 강탈했던 서울 MBC, 부산일보 주식 그리고 경향신문 정동사옥 터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든지 국고에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흥길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고흥길 위원** 지금 이 자리가 2003년도 문광부 결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정수장학회와 아무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장관께서도 적절히 답변을 하셨지만 정수장학회라는 게 교육부 산하 장학재단인데 이 자리에서 쓸데없이 정수장학회니 야당 당수니 과거사니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적절히 발언을 조절하시고 본 안건대로 결산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노웅래 위원** 결산심의가 회계심의도 하고 직무심의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언론과 관련된 문제인데 왜 이것이 관련이 없어요?

○**고흥길 위원** 노 위원하고 제가 논쟁을 하고 싶지가 않고 위원장이 적절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오.

○**김재홍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김재홍 위원** 지금 발언자이신 노웅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부장관은 문광부장관일 뿐만 아니라 정부 내에서 문화·예술·언론 분야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이십니다. 언론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책질의를 결산승인 때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따로 정치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결산승인하는 상임위에서 언론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심재철 위원** 그렇게 상임위에서 질의할 수 있다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도 결국은 전체 국가의 틀에 관련되는 문제이고, 영화 실미도에서 적기가 사용되어서 위법성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문화정책하고도 관련이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관계가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기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결산 대신에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큰 틀부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언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병국 위원** 좀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결산을 하는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라든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모든 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야 될 장소가 따로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정략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미 여야 간에 이 안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야당은 야당대로의 안을 가지고 있고, 여당은 여당대로의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사와 관련된 진상규명법안이 발효되어서 실시되고 있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또 다른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피차간에 민감한 사안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보다는 전체 국회에 넘겨놓고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다뤄야지만 민족의 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과거사 정리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상임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공론을 하지 마시고,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우상호 간사 말씀하십시오.

○우상호 위원 여러 야당 위원님들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상임위를 처음 시작할 때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께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 동료 위원님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라,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상대방의 발언 기회는 보장해 주자. 그 선배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개별 위원들이 준비해 와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겠다 해서…… 사실 그동안 몇몇 야당 위원님들이 다소 주제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셔도 저희 여당 위원들이 중간에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리 문광위의 중요한 하나의 룰로 정해 가자라는 것이 합의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협조해 왔는데 노웅래 위원의 발언에서 조금 예민한 부분을 건드린 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 들으시고 나중에 문제제기하시는 것이 더 적절했다, 발언을 중간에 자르고 들어와서 얘기하신 것은 물론 그 발언의 예민성에 대한 감정적 불쾌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절치 않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 여러 위원님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노웅래 위원이 현명하게 질의하실 것으로 믿고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이야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우리가 어제 결산 심의할 때 정책질의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책질의에 좀 덜 치중해서 결산 심의에 더 치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자 하는 합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좀더 접목하는 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질의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광위원회 안에서 언론과 관련돼 있는 주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만큼 노웅래 위원님께서 야당 위원들의 의견도 참작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웅래 위원 제가 오늘 결산 회의에서 야당 위원님의 견해를 참작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작하는 것은 모르지만 국회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우리 분야 소관과 관련된 질의라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하겠습니다. 개

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굴절된 우리 언론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아까 말씀하신 정수장학회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아투위 조선투위 문제, 이 투쟁의 실상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과 인권유린에 맞서다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서 강제 해직된 160여 명의 해직 언론인들이 25년간 아직 아무런 공식적인 명예회복이나 보상조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동아투위와 조선투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동아 조선 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그 해직과 관련해서는 노웅래 위원님의 견해에 저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진상규명이랄지 또 해직된 분들에 대한 보상 문제—매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한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상을 규명하고 해직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노웅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당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주 측도 알고 보면 사실상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피해자일 수 있다고 봅니다. 표면에 양 언론사 사주가 있지만 실제 사주 뒤에는 박정희 정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동아 조선투위의 문제의 역사적인 해결은 양 투위 당사자들과 양 언론사 간의 명예로운 관계 회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정부는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정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진상조사를 하는 문제, 명예회복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은 역시 국회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명예회복에 관련되어서는 입법조치를 하면 좋다고 보고요.

더불어서 80년 해직 언론인들에 대해서도—저도 80년에 쫓겨난 사람입니다만—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추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입법 추진이 되는 것은 국회에

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부보다는 국회 내에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그러면 국회 말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없다는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할 일을 찾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상은 안 된다고 해도 최소한 명예회복은 시켜주는 게 역사를 바로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동의합니다마는 역시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보상 또한 그렇습니다—국회에서 논의하시면 정부도 논의의 추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조금 전에 장관님 잠깐 언급한 것처럼 80년도에 강제 해직된 언론인도 한 1000여 명에 달하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노웅래 위원** 이분들 문제도 마찬가지로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이고……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자료들이 굉장히 멸실되어 있습니다. 80년 해직된 기자들이 한 1000여 명이라고 하는데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A B C D E, 소위 정권 측에서 보자면 죄질의 무거움에 대한 분류표는 지금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죄질이 무거운 순으로 되어 있는 그 정도에는 아주 소수의 인원만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찾아봤습니다마는 저희 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명예회복, 보상 그런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 먼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웅래 위원** 아무리 민감한 문제라 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리고 정리해야 될 것은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순리이고 그게 지금 시대적인 정신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까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고려하고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서면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흥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고흥길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의사 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오히려 위원들의 발언을 격려 내지는 조장하는 듯한 편파적인 사회를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결산에 모든 정책적인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 아래 앞으로 진행하신다면 저희들로서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경고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미경** 잠깐만요. 지금 위원장에 대해 편파적으로 사회를 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 오늘 아마 여야 위원님들이 모두 질의를 준비하셨겠습니까마는 정책질의가 한 건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산에 대해서 또 예산에 대해서 정책질의가 조금씩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결산에 관계없는 정책질의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어제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어제는 사실 한나라당 위원들께서 정책질의라고는 하지만 주로 적기가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많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모두 다 결의해서 결산 심의만 하겠다 정책질의는 한 건도 하지 않겠다 이런다면 제가 편파적으로 했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어제 문제를 다시 상기하면서 결산 심의에 더 치중해 주시되 정책질의가 일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받겠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파적이라든지 경고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산 심의라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의 가치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개로 떼어낼 수 없다는 것은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테고요. 단지 예산과는 너무 무관한 정책적인 측면이 부각된 질의를 지양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예산과 연동된 정책 부문에 대한 질의가 절반 정도는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흥길 위원님의 말씀은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고흥길 위원** 한마디만 언급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선수들입니다. 상대방 위원들의 질의의 의도가 뭐고 내용이 뭐고 목적이 뭔가를 다 뻔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정책질의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 상대방 위원들의 의견이나 발언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상임위원회 운영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감이 들지 않아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발언한 위원 자신이나 또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시면 판단이 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심정적으로는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언론개혁 문제라든지 또는 신문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다음에 정책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수한 결산에 대해서만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공시설이 연간 2000억 원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국의 10개 월드컵경기장을 약 2조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그 운영실태를 보면 서울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8개의 경기장이 운영상 대개 10 내지 30억 원의 막대한 금액의 적자를 보고 있어 국민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지자체의 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8개 월드컵경기장의 2004년도 운영수지 예산을 보면 금년에도 약 137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종합무역센터의 경우 전시장 가동률이 2003년도 기준으로 볼 때 72%, 회의실 가동률이 59%에 불과하며, 경영실적은 59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EXPO의 경우도 전문전시장의 가동률

은 70%, 회의실 가동률은 29%로서 가동률이 매우 부진하며 경영수지도 2002년에 45억 원, 2003년에 27억 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제주 ICC의 가동률은 17%에 불과하며 2003년도에는 71억 원의 경상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방문예회관의 경우는 더욱 그 부진이 심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문예회관이 122개소로서 시설건립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아직도 매우 미흡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 7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된 이후 전국 122개 지방문예회관의 특별공연 프로그램 개발지원비로 146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준비도 안된 상태여서 갑작스럽게 돈만 내려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지역도 없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수준 낮은 공연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이 자칫하면 선심성 예산 집행이 될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시고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처리 확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영화에 자막처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청각장애인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의 한계에 다다른 한국 영화의 관객층 저변 확대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영화의 자막처리를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극장에 한글 자막기를 설치하는 데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국영화의 자막처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화진흥법에 한글자막 상영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한글자막처리를 포함하여 장애인 등 영화소외계층의 영화 관람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남북평화축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된 남북평화축전에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을 지원한 것은 지원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9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으로 이를 지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예산처의 자체 기금평가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지출로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체육기금은 말할 것도 없이 일반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과 국민 체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 주력하여야 할 기금인데 이를 법적 근거 없이 타 사업에 쓰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제주도 행사와 관련해서는 남북체육교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북한의 돌출행동과 관련된 조치들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목적을 지닌 민족통일평화체육문화축전이 북한의 외화벌이적 성격을 띠었다는 논란마저 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스포츠교류 지원 사업은 국고나 남북협력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불법 지출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하여 지원되는 것이 일부 불합리하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가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생색내기에 급급한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지방균형발전과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중심도시라는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중심도시라는 것이 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이 문화시설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문화중심도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중심도시는 질적인 측면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여론수렴을 거쳐 질적인 측면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개념을 재확인한 다음에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정부의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광주 문화도시에 2조 원—국고가 1조, 지방비 5000억, 민자 5000억이 되겠습니다—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산 영상산업도시에 13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 외에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등의 경우에는 아직 소요예산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 지역사업을 동시에 제대로 추진하려면 총 소요 예산이 수조 원에 달하고 1년에 몇 천 억씩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과 예산사정을 고려할 때 과연 소요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시됩니다.

현지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여기저기 선심만 내고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해서 오히려 각 지역의 원성만 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많은 도시들이 서로 추진하겠다고 할 텐데 이러한 경우 문화관광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문화중심도시 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내에 추진계획단을 두고 인원을 무려 49명이나 두고 있는데 업무 내용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직원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본부에서 일부 직원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특별 채용한 직원들의 명단과 그들의 경력 등 인적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가능성이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해외문화원 업무를 해외홍보원과 종합하여 외교통상부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해외문화원과 해외홍보원을 통합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해외문화원 업무를 외교통상부로 이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적합하지 않

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광산업의 진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성급하게 갑자기 서울과 부산에 3개씩 해 놓을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 특히 관광공사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나중에 관광공사 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국회에서의 결산심의회는 2003년도에 국가의 살림을 잘했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를 개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심의회를 위해서 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다음을 위한 것인데 계속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보조금 예산편성 시에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부 사업의 상당 부분이 국고 보조금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6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는 차등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2003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시 중구의 자립도는 91.9%인데 전남 신안군의 자립도는 6.7%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등 지급이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집행되지 않은 곳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입니다. 안동문화예술회관의 경우를 보면 2003년도 안동시의 재정자립도가 18.3%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성군의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지 못했는데 이것 역시 2003년도 고성군 재

정자립도가 15.5%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자체마다 재정자립도에 심각한 차이가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고 보조금의 차등 지급이 이루어져야만 되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생각에 적극 동감을 표시합니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이 위원님 주장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부처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정부 내 예산 운용제도와 결부되어 있어서 적극적인 예산 운용제도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점을 예산 당국에 촉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경숙 위원 법률에 의거해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선도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진흥원 원장은 공석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경숙 위원 그렇지만 장관으로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콘텐츠를 진흥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장관도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기대 속에 출범한 문화콘텐츠진흥원의 경우 아직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대부분 사업별로 기준을 정하고 기술개발사업 이외에는 기술평가가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수한 기술을 채택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의 지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없다면 나누어 먹기 식으로 집행이 되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곳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문화콘텐츠가 진흥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캐릭터라든가 애니메이션 등 일부 분야에서는 감수성이 뛰어난 여성이 제작한 우수한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위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지적사항인데 문광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여성 사업자를 우대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화콘텐츠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여성 지원 현황이 전체 358명 중에서 37명으로 1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문화산업 분야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출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지원해서 문화콘텐츠 산업을 진흥시키고 여성인력 활용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우대조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지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좀더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화산업진흥기금인데 문화산업진흥기금이 교육, 문화, 외교 분야의 평가에서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경숙 위원 우리나라가 제5대 문화관광국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기금평가에서 제일 마지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경숙 위원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3년마다 실시되는 기금운용평가 보고서를 보면 왜 이런 평가가 났는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가지 않고 수동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내용과 목적이 일반 예산사업이나 기금사업과 중복된다, 세 번째가 기금수입의 중장기적인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이렇게 평가되면 앞으로 문화산업 강대국으로 도약하는 데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집행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자사업의 집행실적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실적을 보면 현재 4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75.6%인데 2003년도에는 왜 이렇게 집행실적이 낮은지, 이렇게 용자실적이 부진한 이유로는 용자신청 업체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용자금리도 시중금리보다도 그렇게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만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에 진입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자 실적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금운용 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 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성과가 없다는 지적과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활용 실적은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과 일정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우수 기술개발 업체에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가 문화상품 완성보증보험제도를 채택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문화산업 업체가 자금 압박으로부터 다소 해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용자 실적이 낮다 해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의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계속 존치해야 되고 그 개선책을 면밀히 마련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여성 우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느 부분에서는 여성에 대한 우대에는 동감합니다마는 문화상품, 문화콘텐츠에 있어서는 그 내용과 질로 평가를 해야만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탁월한 감수성은 우리 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콘텐츠 내용을 따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여성 우대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자사업 실적 저조와 관련해서는 기술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서 담보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예술인회관 문제, 지방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합리화 문제와 우수게임 사전 제작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하겠는데 그

핵심은 선택과 집중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이 뛰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 박형준입니다.

우선 이번 결산에도 나타나지만 국고보조금 가운데 지역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대부분 생산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문화관광부가 문화 분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분권이 안 돼서 이런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전부 심의해서 예산을 나누어주다 보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충분한 기대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부터 따오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그 기대효과가 굉장히 못 미치거나 진행도중에 타당성이 없어서 포기한 유형들이 많습니다.

또 매칭펀드로 했을 때 지방이 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못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균형발전 회계로 옮겨가기는 합시다라는 지역의 자율권을 훨씬 강화해 주어야 됩니다. 또 지방정부가 문화에 관해서는 실제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도 매우 노력을 합시다라는 지방문예회관 같은 것은 과다하게 건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박형준 위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 주시고 일단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러니까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라는 지방분권과 자율을 주장하는 참여정부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라는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지방에 예산편성을 맡긴다면……

○**박형준 위원** 협의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협의를 하되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해 주고 그 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예산을 어떤 식

으로 썼는지 중앙정부가 감독을 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결정권을……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문화와 관련된 것은 거의 지방 자체에서 정책을 세웁니다.

○**박형준 위원** 정책은 세우지만 그 구조가 중앙에서 예산을 따오기 쉬운 것부터 정책을 짜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괄답변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체적으로 경륜·경정수익금 중 공익사업 배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적립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이미 문광부에서는 동일사업에 2회 이상 반복해서 지원하지 않도록 했는데 그 이전에도 그것은 하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검토보고서에도 나오지만—동일사업에 2회 이상 반복해서 지원한 사업이 20개 정도인데 그 가운데 전국문화원연합회 같은 데에는 연속해서 3억 원씩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원칙은 세워 놓았지만 실제로 실행은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같이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예술인회관이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저희 위원실에서 예충에 답변을 요구해서 보니까 예충은 계획은 있지만 실제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광부도 이에 대해서 별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어서 예술인회관 건립만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든가 아니면 정부가 예충으로부터 사업 전체를 인수해서 위탁관리를 하든지 하는 방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그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50억을 환수하도록 하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조기에 민간에 이양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이나 정부가 사업 주체인 예충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예충 측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이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든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추진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부산국립국악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사업설계액이 실질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 2007년까지로 연장되었는데 아직 착공도 못하고 발주업체도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결국 또 연장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산국립국악원도 일종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난번에 부산시장이 저희 부에 오셔서 같이 논의도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부산에 대통령 행사 때 가서도 이야기했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국립국악원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지금은 지연되고 있으나 이 점은 저희 부가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등보조율 편성과 관련해서 규정사업과 미규정 보조사업의 구별이 모호하고, 특히 미규정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에서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결산에서는 그게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 결산할 때까지는 예산결산 항목에 분명하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자료가 상당히 신뢰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금의 회계제도 및 재무보고에 대한 작성지침이 미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종 기금별 관계 법령이나 기금관리기본법 등 각각 상이한 기준을 편의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과 관련해서 제출된 자료들 간에도 수치나 대비 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청소년육성기금의 경우에 문광부에서 여유자금은 3794억 원으로 얘기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작성한 것은 2777억 원으로 나와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도 그렇고 문예진흥기금도 다 수치가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회계제도 및 재무보고에 대한 작성지침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냐, 또 이런 상태에서 결산을 해 달라고 하는데 서로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결산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생깁니다. 차제에 기금결산을 위해서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결산방식을, 회계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기금사업 범위의 불명확성에 관해서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기금의 중복 지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 지원에 있어서 산업자원부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사업, 정보통신부의 게임산업육성사업과 문광부의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복 지원되고 있고, 또 디지털방송 관련 지원도 역시 방송발전기금이나 정보화촉진기금과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기금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특정화하고 명확화하여서 다른 기금들과 중복 지원이 되기보다는 문광부만이 잘할 수 있는 사업에 특수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금 집행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기금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의 하나가 기금 지원 후에 그 집행 결과를 확인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관리 및 사후 평가·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지원이 적정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지금 결여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경우 상품화 및 마케팅 분야에 대한 융자사업은 문화콘텐츠 개발이 완료된 후에 자금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융자지원금이 해당 사업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사후확인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장치가 미비합니다.

여러 기금들이 다 이런 상태인데 기금 집행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 위원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문화산업이 갖는 의미와 내용은 대단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갖는 예산 자체가 대단히 협소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꼼꼼히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기금이나 여타의 부분에서 중복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박형준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 간의 중복성도 많지만 문광부 내에 있는 기금과 기금의 문제, 각 부처와 민간단체와의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중복성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비효율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운용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회계와 기금, 기금과 기금 간의 전출·전입금에 대한 처리규정 등 표준규약들이 시급히 제정되지 않으면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대단히 의심받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이 중복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누차 국정감사나 자체평가,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평가에 따라서 부처에서 실현하기로 약속한 부분조차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유사한 지적들이 반복되는 것은 문광부에서 관리하는 기금들의 구조가 복잡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서 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기금에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지적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집행기준이, 기금에 대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과 대책들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표준적용이 빨리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정부와 민간, 정부와 산하기관, 정부와 자치단체 간에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단히 중복되어 있는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 간의 역할분담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부와 산하기관의 사업 중복 여부를 보면 국립국어연구원의 사업과 문광부 국어정책과의 국어사용능력증진과 국어정책지원사업들의 중복성 문제라든가 문예진흥원의 사업과 문광

부의 예술진흥과 창작지원사업들이 실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좀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민간에서 이미 활성화되었거나 자체 조달이 가능한 영역에 대한 국고지원이 다시 검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민간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간 부분에 사업을 지원하고 이관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 문광부에 사무관이 한 명밖에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내용이 없고,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협회라든가 문화의집협회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관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역할분담도 대단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나 문화역량, 문화적인 특성이 다르므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부분도 이야기하지만 문화적 불균형이 심화된 부분들은 더 시급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특성이나 조건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차별적 부분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부와 산하기관, 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체계도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예진흥원과 중복되는 예술국 사업도 과감하게 문예진흥원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국 사업과 문예진흥원 사업이 중복되는 측면을 본 위원이 추산하건대 160억 원 이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국제미술전 참가 지원이라든가 문학·미술 행사 지원이라든가 유명예술인 예술강좌 개최 지원, 문학창작활성화 지원 등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감하게 예술국 사업 중 예술적 가치판단을 요하거나 창작 지원에 관계되는 민간지원사업들은 기금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개편되면서 명실상부한 문화예술 진흥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복되는 예술국 사업을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술국 사업이 가칭

문화예술위원회로 이관될 경우 어떤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이관될 수 있는 것인지 듣고 싶고, 문광부에서도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 과정에서 예술국 사업들을 대폭 문예진흥원에 이관한다고 약속했었는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쪽에 묻고 싶은데요. 기금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특별회계로 처리되어서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난지도골프장의 특별회계 처리 같은 경우에 회계 부분이 부적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당 골프장 같은 경우 국민체육진흥기금 증식을 위해서 기금을 투자해서 서울특별시 부지에 골프장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는 대신 일정하게 운영권을 받아서 운영수익으로 투자액을 보전하는 기금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금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현재까지는 공단회계 특별회계로서 처리하고 있어서 소위 특별회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국회 내에서도 골프장 운영에 대한 상세한 회계명세를 알 수 없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회계로 편입시켜서 관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기금회계에 있어서의 특별회계로의 자유로운 전입 전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소위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전입처리하고 손해일 경우는 손실보전 처리하는 회계처리방식 자체가 특별회계로 이행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제고해야 될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고요. 회계의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한 회계결산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단 측 입장,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장관님 인사말씀 중에서 주요한 문화관광부 사업으로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감사에서도 지적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이 불법 또는 편법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예산낭비 사례가 적지 않은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추진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거제시의 경우 동백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환경부의 개발 불가 통보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에 40억 원의 예산을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같은 경우 42억 원을 지원받아서 이 가운데 16억 원을 국고로 쓸 수 없는 토지매입비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시 같은 경우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0억 원을 지원받고 있고, 사천 진해 남해 등 5개 시·군의 경우 74억 원의 예산을 2년 동안 집행하지 않고 있고 국고에도 반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들을 중단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전면적으로 감사하고 재평가작업을 통해서 사업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과 의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수지 적자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정도로 심각한 과정에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 유치홍보 문제는 관광수지 적자를 타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외래 관광객 유치 홍보에 사업비를 대폭 잡아놓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460억 원 정도, 그다음에 홍콩 같은 경우는 970억,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890억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1억 원을 잡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국고 12억 원과 관광공사 해외홍보로 89억 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의 15억 원 예산이 2003년도에는 12억 원으로 그나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문화관광부장관님이 갖고 있는 견해, 한국관광공사 및 문광부에서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비를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산하단체 직원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음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뺏는 것을 지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질의가 없는 산하단체 기관장은 오전 회의가 끝마친 이후에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오후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원사무국,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예술의전당,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委員** 우선 장관님과 여러 기관장들 결산 심사받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에 관한 것은 몇 가지 사항을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재정운용 대책에 관한 문제,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재정구조에 관한 것, 예산과 기금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 국고보조금 사업의 문제에서 국고보조금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에 관한 것, 사후 관리·감독이 미흡한 부분, 절차상의 문제, 사업목적 외의 예산집행의 문제, 한국방문의해 사업 추진 문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 사업 문제, 선진 무용교환 교육사업 문제, 기금결산에서 기금운용 사업의 실적 저조 문제, 문화산업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특히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해서 여유자금의 과다 보유 문제, 청소년 책읽기 운동사업에 관한 문제, 청소년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당 분야의 답변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 제가 국회에 와서 오랫동안 예산 결산을 하면서 하나 불가사의하게 생각한 것은 지금 문예진흥원하고 체육진흥공단을 보면 어떻게 수입하고 지출 내역이 10원 한 장 안 틀리고 똑같은지? 기관을 운영하는데 수입과 지출이 몇 천 원이라도 차이가 나야 될 텐데 이 자료를 보면 다른 기관도 다 그래요.

체육진흥공단도 보면 5130 뭐 해서 쪽 끝 자하고 첫 자하고 수입 지출이 똑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살아도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떻게 이

렇게 딱 떨어지게 맞추지요? 이것 참 기술이 용하네요. 문예진흥원도 보면 실적이 1380 얼마로 이것도 수입 지출 실적이 똑같고, 그 밑에 실무자들이 감사할 때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까? 답변은 알겠습니다. 내가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이것도 정직하게…… 몇 천 원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고 몇 백 원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날 텐데 국회 제출 서류를 이렇게 똑같이 맞추는 재주가 참 용해요.

장관님! 제가 이번에 문광위원회 처음 와서 국감을 앞두고 공부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기관을 꼭 다녀 봤습니다. 거의 벼락치기 공부한 것이지요.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경정경기장, 양평에 있는 종합촬영소, 평화진흥위원회, 종합예술학교, 예술의전당,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전통문화학교, 백제역사복원현장, 부여백제박물관, 문예진흥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을 죽 다녀 봤는데 구체적으로 입법을 할 것은 입법을 하고 정책을 바꾸는 것은 국정감사 때 제가 일괄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방문했던 기관의 기관장님들이 아주 잘 협조해 주셔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각 기관에서도 이번 정기국회에 자기 기관에 해당되는 입법 사항과 지원 사항, 법률개정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것은 국감 때 제가 묻겠습니다.

다만, 관광공사 사장님 나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부여에 백제역사현장 복원한 것 있지요? 민자도 들어가고 했는데 관광공사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제가 사업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백제 유적지가 복원이 되고 백제촌이 실현이 되면 건설하는 것은 문광부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만 어차피 관광지로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국내 관광객들이 백제 문화촌, 백제 유적촌을 갈 것 아닙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예, 맞습니다.

○**李在五 委員** 관광공사가 거기에 대한 사전 계획이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백제문화촌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마는……

○**李在五 委員** 지금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데 공사 시작할 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달라서 지지부진한 것도 있는데, 제가 가보고 느낀 것은 이렇게 수천억 되는 돈을 투자해서 지어 놓았는데 관광이 안 되면 헛돈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관광공사가 지금부터 충남도청하고 문화재청하고 관련기관과 상의를 해서 다 건설되었을 때 어떻게 관광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예, 잘 알았습니다.

○**李在五 委員** 또 하나는 이것도 관광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관광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경주 신라촌 건설하는 것 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예, 알고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민자를 삼부인가…… 어디서 했습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예, 그 계열입니다.

○**李在五 委員** 민자를 유치해서 신라촌을 하다가 지금 경기도 안 좋고 회사 사정도 나빠서 거의 폐허 비슷하게 산 밑에 그냥 방치되어 있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예, 그렇습니다.

○**李在五 委員** 방치된 지가 한 3~4년 되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런 것도 해당 기업이 못하면 관광공사에서 과감하게 인수를 하세요. 아니면 해당 기업하고 관광공사하고 투자 비율을 넣든지 해서 신라촌을 복원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산 밑에 그냥 폐허처럼 보기도 흉하게 방치해 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다 문화관광부 사업으로 알잖아요. 저도 처음에 문화관광부가 왜 이런 것 하나 생각했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민자로 관광 목적으로 했던 것인데 그것도 1~2억이 아니고 몇천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해당 기업하고 관광공사가 내 일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서 기업하고 해서 기업이 못하면 관광공사가 돈을 투자하든지 아니면 관광공사가 인수하든지 해서 신라촌 문제도 매듭을 지으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의 관광객 문제도 관광공사가 계획을 좀 세우시고 관광공사가 우리나라의 적은 자원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있는 자원만 관광하게 해서야 우리나라가 관광 수입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국감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도 현지를 방문했고 경주시와 경북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광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돌아가도 좋고 말한 기관 중에서 위원님의 추가요청이 있어서 한 군데는 남아 계셔야 되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후 질의에 대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李在五 委員** 예술원 담당자 계십니까? 원장님이 나오시지 않으셨지요? 오후에 예술원 관계 제가 질의할 게 있으니까 좀 남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우상호** 예, 그러면 두 기관은 오후에 남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미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아테네올림픽에서 9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준비하고 또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제일 앞장서서 노력해 온 대한체육회 이연택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잠깐 놓치고 지나갔는데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었고 그래서 질의를 좀 집중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

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느 조간에 어떤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님이 칼럼을 쓰셨습니다. 칼럼의 제목은 ‘동호인이 메달 따는 시대를 만들자’ 이런 제목하에 기사를 썼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선진국처럼 우리도 이제 많은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운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저변의 바탕 위에서 선진국처럼 메달을 따자 그런 요지입니다.

생활체육도 활성화되고 또 그를 바탕으로 올림피아드에서 메달도 더 많이 따고 이러한 우리의 먼 체육의 미래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정책이 수립되면 필요한 예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정동채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이연택 대한체육회 회장님께 우리가 격려의 박수를 쳐드렸고, 우리 모두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아테네올림픽에서 우리는 금메달 9개로 종합 9위, 그리고 일본은 금메달 15개로 종합 5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한번 해 보시지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과 거꾸로 금메달 15개로 종합 5위를 달성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국력이 세계 5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이 세계 5위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메달 지상주의 그리고 메달 수를 국력의 잣대로 호도하면서 내치에 이용했던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체육정책과 체육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선수들이 고갈되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실업팀을 많이 창단한다 해도 선수가 없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는데 물을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를 바란다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일 것입니다.

한국 근대 체육사를 통해 가장 불행한 일이었던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사건이 노무현 정부 초기에 발생했습니다.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초등학교 합숙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선수, 운동하지 않는 일반학생’, 우리 청소년들의 일그러진 자화상입니다.

올림픽 9위인 한국과 5위인 일본의 풀뿌리체육 저변과 인프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일본과 한국의 풀뿌리체육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엘리트체육 선진국, 생활체육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가시겠습니까? 이제 긴 호흡을 쉬고 저수지에 물을 그득 채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체육을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침체된 한국 시민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참다운 웰빙시대를 만들어 가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5일제를 맞이하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도적 대안은 유럽형의 스포츠클럽입니다. 스포츠클럽은 첫째, 청소년과 시민들을 위한 풀뿌리체육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고 둘째, 학교·생활·엘리트체육이 분절되어 있는 우리 체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스포츠클럽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도 스포츠클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안민석 위원님 지적대로 스포츠클럽의 필요성이 아주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우리나라 체육의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을 통해서 선진형 스포츠클럽으로 나아가 된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 사이에 벤치마킹을 위해서 독일 등 유럽 현지를 방문하고 네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서 안민석 위원님께서 죽 지적해 주신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국형 스포츠클럽이 성공하려면 우선 현재 이분화되어 있는 아주 기형적인 우리의 체육단체가 통합되어야 할 것이고 스포츠센터, 잔디축구장 등의 장기적인 시설확충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스포츠클럽 지원예산을 대폭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생활체육회에 연평균한 70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에 방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우리 체육이 이제 선진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진국처럼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즐겁게 스포츠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의 기초하에서 이러한 큰 틀을 가지고서 정책을 수립하시고 국고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그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국감 때 또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진 위원 정중복 위원께서 타 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이 되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문제로, 아까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과 박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에 박힌 관행적인 숫자 맞추기라든지 결산보고에 대한 틀에 박힌—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나 수치만 바뀌는—보고는 정말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군에서 행정병을 했습니다. 처음 탈영보고를 하게 되니까 막막했는데 선배가 하는 얘기가 “그것을 뭐 고민하느냐? 먼저 탈영한 사람 이름만 바꿔서 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이 군사문화일 것입니다. 실제 살림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남았으면 남은 대로 정확하게 수치가 되어야 되는데 숫자 맞추기식,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의 효과성이나 효율성 등 실질적인 사업성과 위주의 결과분석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형식적 검토였다는 생각을 면할 수 없습니다.

2002년 KBS결산승인안 부결을 예로 보아도 현재 예산집행과정의 위법이나 부당행위에 대해서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어제 회의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부결되었다,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그대로 한다…… 아무 구속력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회의원이 되어서 활동해 보니까 결산위원회의 분리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조사해 본 바로는 일본과 영국이 그렇게 한다는군요. 특히 영국은 야당을 위원장으로 해서 상시 회계감사원의 보고를 통해서 강력한 회계감사와 결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물론 문광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그 방법의 하나로서 감사원의 회계기능이나 직무감찰기능을 국회소속으로 이관하면 어떻겠느냐,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예가 있습니다.

부결되거나 위법이나 부당사항이 지적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수치만 계속 바꾸어서 짜 맞추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결산심의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한 말씀 드렸고요.

장관님께, 프랑스 문화상을 지낸 앙드레 말로 얘기는 잘 아시겠지요? 그분의 미적감각이나 생활철학 또 그분이 걸어오신 길이 문화상이 되어 가지고 프랑스의 문화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격상시키고 각인시켰는가를 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 천장 그림을 샤갈에게 부탁해서 그렸다 이것은 아마 정치적인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감으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서는 그만한 격을 갖추신 분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었던 것 중에 간판문화의 쇄신을 위한 시도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좀더, 이 분야에 대한 추진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정말 우리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하는데 문광부에서 할 수 있는 일로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루아침에 되거나 몇 년 사이에 되지는 않겠지만 장관님께서 토대를 닦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자한테 얘기하면서, 종교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밤에 붉은 십자가를 많이 보고 공동묘지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인용해서 했더니 종교계에서 반론을 제기했어요. “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느냐?” 교회 십자가는 아름답게 하면 안 됩니까? 더욱 아름답게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관계자 분에게 지시를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그 계획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

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간판문화 개선은 지금 부산 광복동에 시범구간을 정해서,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지난번에 업무계획을 얘기할 때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마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거기를 시범적으로 개선시켜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장님들과 의회 의원님들을 그쪽에 초청해서 그것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확산시킬 생각입니다.

○**이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집중현상 가운데 국보나 보물 등 지방문화재가 서울에 와 있는 것이 많합니다. 이것이 현행법상 어렵다고 하는데 법을 고쳐서라도 제 위치에 돌려놓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국적인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원위치로 돌리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것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국립국어연구원장님 안 가셨지요? 가지지 않게 한 것은 저였습니다.

아마 해방 이후에 국어 관계 책임자가 이 자리에 선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시겠습니다.

국어기본법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통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국립국어연구원장 남기심** 이것의 주무부서는 원래 국어정책과입니다마는 연구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진 위원** 한글 같은 세계 일류의 문화유산이, 정말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듯이 ‘한글도 우리 소수민족의 글이다’라고 보고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것을 국경일로 안 해 놓고, 주5일제 하는 나라에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따가운 질의인데 지난번에 국립국어연구원 같은 기관에서도 수도이전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을 혹시 받으셨나요?

○**국립국어연구원장 남기심** 예, 한두 시간 가량 받았습니다.

○**이계진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부 반발과 문제점 지적으로 탄로가 난 것인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도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공무원 또는 산하의 계약직, 민간인, 예술인 대상 교육이 지적되었는데도 강행되었습니다. 먼저 장관님이 입안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국립국어연구원의 연구위원들까지 다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써가면서 그들에게 이것이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세뇌작업성 교육을 시켰다는 것은 정말 잘못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제나 국가보안법, 방사능물질 폐기장 문제, 북한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관통 문제 이런 것도 계속 한다면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한 당위성에 확신이 없어서 교육을 시켰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꼭 시켜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대통령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공무원이나 계약직, 민간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그 당위성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역설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입맛에 맞는 것은 교육까지 시키고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지 둘 중의 하나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지적했는데도 교육이 아마 강행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인데 제가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금메달 따고 국위를 선양한 데에 대한 박수를 드렸습시다마는 숫자는 비슷했지만 예측과 결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딸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은 거의 다 떨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분투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경기력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또 도둑맞은 금메달 양태영 선수, 소매치기 당한 금메달 장미란 선수, 사기당한 기분인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같은 것이 스포츠 외교가 부재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맨십이 통하는 국제무대에서도 최소한의, 역지를 쓰자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포츠외교 전문가나 스포츠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길러야지, 분통만 터뜨리고 있고 막연히 몇 위는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비

숫하게 숫자는 맞추기는 했지만 이것은 숫자만 맞았지 사실 예측하고는 너무나 빗나갔던 것 같다는 생각과 억울한 메달 같은 것은 마치 국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분통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스포츠외교 향상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서 주무단체장님이 보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산업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분중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게임산업 현장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방해만 안 하면 세계 1등의 게임산업을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심의규제가 너무나 옛날식이고, 여자 젓가슴만 조금 나와도 심의에 통과가 안 된답니다. 그래 갖고 세계무대에서 게임산업이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게임산업을 가지고 중국 부호가 어떻게 해 가지고 재벌 1위가 되었다면서요? 지금 재기가 넘치는, 창의력이 넘치는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규제가 너무 많아 못하겠다는데, 한번 해 보면 굴뚝산업 이상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다는군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숙 위원입니다.

장관님께서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문화 전반에 걸친 살림과 정책을 입안하시느라고 분주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잠깐 짚고 넘어 갈까 합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문화예술의 세기라고 모두 말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특히 선진국일수록 문화산업이라는 경제전쟁에 돌입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문화를 산업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육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가지적 성과로서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한류열풍 등으로 경제적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은 문화산업에 치중하면 할수록 그 산업의 기초에 해당하는 예술의 육성·보호에 많은 관심을 쏟고 교육과 예산지원 그리고

복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혀 그렇지 못한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문화예술을 경제적 시각 우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경제라는 열매를 따는 데만 치중하고 그 뿌리 부분인 기초예술을 소홀히 한다면 그 나무는 점점 고갈되어서 결국은 열매조차 부실해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이치입니다.

저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초예술 현장을 돌아보고 각계의 많은 예술인들과 만났습니다. 예술인들은 그동안에도 가난했지만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예술가라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나마도 버틸 수가 없어서 먹고 사는 문제와 예술 사이에서 방황하다가 떠나버리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견예술가가 후배가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이름만 대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전문화가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문화예술의 현실을 보면서 미래가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이 기초예술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죽는다고 아우성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고도성장 아래서, 깊어진 그늘 속에서 허덕이는 풀뿌리 예술인들을 보면서 문화민족이라는 말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큰 예술축제일수록 정작 지역예술인들은 소외되고 주최자들의 치적을 위한 생색내기 우선과 주변의 공무원들 그리고 상업주의가 먼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결산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체를 바라보는 문제여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2003년도 결산에서도 기초예술부문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2003년 예산 2조 2496억 원 중 기초예술과 관련해서 쓰여진 것은 얼마인지, 그리고 문광부 전체 예산 중에서는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장관님께서서는 이 정도의 액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리고 이후에 대폭 늘리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장관님께서서는 기초예술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일반회계사업과 기금사업의 구분 기준을 정해 놓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하기관이나 단체들과도 사업계획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쭙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동일한 규모의 5개 기금은 법에 의해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금마다 사업비보다 훨씬 큰 규모의 여유자금,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 결산 기준으로 문광부 소관 5개 기금의 운용 규모가 총 1조 4587억 원인데 이 가운데 여유자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구조로 인해서 전략적 재원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기금을 포함해서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재정구조를 다시 짜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은 영화, 게임, 모바일 콘텐츠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드라마나 음반 등도 아시아 지역에서 선풍적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개발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억 원 투자했을 때 전체 산업이 평균적으로 1억 8000만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내지만 문화산업은 2억 원 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문화산업 시장 규모가 39조 2037억 원이고 2002년 세계 시장 규모는 우리 돈으로 1415조 7000억이라고 합니다. 국가경제 차원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특히 문광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점을 보면서 재원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장, 우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기금운용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예산 2162억 2800만 원 가운데 문화산업융자지원사업이 290억 원으로 총 운용 규모의 13.4%이고 문화산업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융자금을 회수한 여유자금 운용은 1864억 원으로 총 운용규모의 8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이자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늘려나가는 것과 문화산업에 투자해서 이익창출을 높여나가는 것 중 무엇이 득이 되는지를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또 그나마 290억 원이라는 융자지원사업의 2003년도 집행률을 보면 48%로 지난해의 83.9%에 비

해서 월등히 떨어졌는데 이토록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전반적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과 낮은 금리, 문화산업의 담보능력 부족 등을 들 수 있지만 기술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거나 수시융자제도의 도입 등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장관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의 것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세** 위원 앞의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로 지난 한 해 예산지출에 대한 지적과 문제제기로 질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저는 재원마련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광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입법이라든지 입장을 보면 사행심에 의존해서 손쉽게 재원을 마련하자는 태도, 입장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입법 움직임을 보면 사기업처럼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서 도박산업을 상당히 부추기고 사행심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6월 2일 대규모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미화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낸 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레저·관광 시설에 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국내기업에게도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담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에서 조금 더 과장을 한다면 혹시라도 카지노공화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기까지 합니다.

관광산업 진흥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경마, 경륜, 경정, 복권에 이어서 단순한 민속놀이가 아닌 도박성을 띤 개싸움, 소싸움, 개 달리기까지 하고 있는데, 최근 항간에 우스개 소리로 투견법, 경견법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도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도박산업 전체를 적절하게 규제하고 감독해야 되겠다는 판단 아래 도박산업규제법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정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13개입니다.

○천영세 위원 14개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외국인 전용 13개, 내국인 전용 1개 해서 14개입니다.

○천영세 위원 서울, 부산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강원도 정선에 있는 내국인 전용 카지노는 흑자이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서울, 부산을 제외하고는 적자입니다.

○천영세 위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

○천영세 위원 차관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확실하겠지요.

일본, 중국, 싱가포르에는 카지노가 단 1개도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데 지금 일본은 입법을 통해서 2005년부터 카지노를 허용할 생각이요……

○천영세 위원 일본의 이시하라 동경도지사가 시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극우에다 문제가 많은 지사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여론이 아주 안 좋은데 지금 그런 사람이 그 일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누가 추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싱가포르, 대만에도 미국 카지노산업이 진출하고……

○천영세 위원 하여튼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카지노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새로 서울 두 곳, 부산 한 곳에 카지노를 허가하겠다는 내용으로 관광진흥 방안을 얼마 전에 대통령께 보고하신 것은 사실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보고하고 발표했습니다.

○천영세 위원 장관님 보시기에 카지노는 도박 행위입니까, 관광행위입니까? 짧게 말씀하세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관광과 도박이 같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천영세 위원 그렇게 관광과 연관되어 있으면 왜 내국인한테는 한 곳만 허용하고 외국인들에게는 전부 다 허용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 중 중국인들의 13% 정도가 카지노에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서는 한 곳이 36년째 독점을 하고 있어서……

○천영세 위원 강원랜드를 보시면 내국인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모이는지 아시잖아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거기는 내국인들이 가는 곳이고 저희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천영세 위원 됐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1400억 불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미지를 카지노하기 좋은 나라, 조금 과장해서 도박대국으로 만들면서까지 외화를 벌어들여야만 할 정도로 외화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정말 도박 말고는 한국이 외국에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대체 문화관광부의 관광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도 아니고 정동채 장관이 부임하셔서 이 부분이 이렇게 확대되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관광수지 적자가 금년에만 해도 30억 달러에 이릅니다. 그 적자를 메우지 않으면……

○천영세 위원 그렇다고 해서 관광산업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데 문광부 기금 중에서 사행 산업 실적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70%를 차지하더라고요.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 규모가 1조 6000억이 넘는데 다른 부처에서 이것을 상당히 부러워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관리가 투명하게, 공익성과 합리성을 갖춰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심의위원 뱅크제를 도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카지노, 복권, 경륜, 경정 등 이른바 사행산업이 문화관광부 소관 5개 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달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난해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 1조 6000억 원 가운데 사행산업 실적에 차지하는 비율이 28%, 4500억 원으로 3할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로운 경륜·경정클리닉을 개원해서 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심리상담사를 두고 있다고 상당히 자랑스럽게 보고를 하셨는데 장관님께서서는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마사회가 공동으로 용역을 주어서 2001년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자가 32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의 9.3%로 선진국의 4, 5배에 달합니다. 도박으로 먹고사는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도 6%밖에 안 되는데 그보다 훨씬 많습니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범죄 등 국내 사회적 손실액은 10조로 같은 해 합법적인 사행산업 매출액 9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문화대국을 이루겠다고 하는 참여정부에서 경륜을 지니고 계신 분들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아까 남해안관광벨트 문제에 대해서 이광철 위원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셨는데 경북북부유교문화권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문화일보를 보니까 고구려 유적인 아차산 흥련봉 1보루 유적의 추가발굴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보니까 2억이 부족해서 추가발굴을 못한다는 것이네요. 그런데 몇 백억이 지역에서 그냥 썩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전에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적인 기조들이 계속 제기되었는데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이거든요. 문화재청 예산이 연간 3600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문광부에서 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꾸 미루고 있는데 이것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 경주 출신 정종복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부분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부가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보니까 문화예술진흥 분야와 같은 경우에는 국고예산은 국가문화인프라 측면을 우선 지원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직접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서울공연제, 춘천인형극제, 한민족창작음악축전 등 6개 사업을 보면 국고와 기금이 중복되어 있고 2004년 역시 9개 사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국고와 함께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연극, 무용의 경우를 보면 현재 문화관광부는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공연작품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도는 지원대상을 당해연도에 확정하고 있고, 무용·연극 분야에 기금을 지원하는 문예진흥원은 전년도 12월에 수혜대상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충분히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03년도의 연극·무용분야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문예진흥원의 지원신청 건수를 보니까 701건이었는데 막상 지원된 건수는 237건으로 전체 32.2%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원신청의 절반도 안 되게 지원되는 여건 속에서 기금을 중복 지원하고 있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일괄답변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지원을 받는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정하여 각 시·도에 시달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기금을 지원하는 단체와 문화관광부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관광공사의 경우 문광부에서 2003년도에 국고 350억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관광공사에서는 그중 115억 원의 예산을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부대로 관광진흥기금 중 197억 원을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에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유사한 분야에 중복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활동 등 문광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과 관광공사의 사업에 대한 역할

분담을 위한 상호간의 협의와 조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역할분담이 있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2003년도 결산 기준으로 일반회계에서 관광자원 육성 개발, 문화관광축제 개발 육성 등 3개 사업에 대해 490억 8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사업인 관광객 유치기반 조성, 관광상품 개발 보급 등의 사업에 관광진흥기금에서 55억 8500만 원을 중복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관광분야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문화관광부의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사업 기준을 보면 지방문예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 0.7관, 공립박물관은 12만 명당 1관, 공공도서관은 8만 명당 1관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기반시설 건립지원사업 보조사업자의 실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2003년도 예산현액의 38%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는데 현재 문예회관 건립사업의 사업당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예회관의 경우 건립비가 적게는 40억에서 많게는 500억 원 규모인 것을 볼 때 문광부가 지원하는 20억 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관 건립기준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약 1관으로 되어 있으니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높은 곳은 낮게, 낮은 곳은 높게 하든지 아니면 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광부는 96년부터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공립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에 국가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보니까 국비 30%, 지자체 70%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70%의 충당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립이 지연되기도 하고 공사가 부실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내용물을 구입하지 못해 운영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 부지매입비와 자체 예산 등을 합치면 공립박물관의 총 건립비용은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로 나오는데 1조 원대가 넘는 문화관광부의 연간 예산 가운데 박물관 지원 예산은 3%도 안 됩니다. 이것 역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국고보조액을 차등화한다든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지원액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와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종복 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월 중에 1차 후보지 다섯 군데를 선정하고 연말쯤에는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지금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정종복 위원 현재 실무위원회에서 입지선정 방식, 절차,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됩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추진위원회가 민간위원회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절차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민간위원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잘 안 됐는데 저희들은 금년 내로 부지선정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정종복 위원 실무위원회가 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추진위의 의결을 거치고 다시 유치신청 자치단체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10월 중에 1차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난 2000년의 경험도 있고 또 그때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실적과 대강의……이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10월 중에 1차 후보지 선정하고 12월까지 완료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 좀 걱정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정치실세 지역이 이미 확정되었다,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선정 과정, 과정마다 유치신청 도시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이해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태권도공원 선정과정이 내부적으로 확정된 도시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이 자리에서 장관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주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말씀하신 데 동감합니다.

○**정종복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남제주군 지역구의 김재운입니다.

문화관광부가 내세우는 것이 창의한국입니다. 창의력을 통해서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부의 원천으로 삼자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창의 한국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독서문화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문화관광부 예산을 보면서 독서진흥정책을 위한 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독서진흥을 위한 예산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정책국이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화정책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작년도 경우 공공도서관 자료비는 약 101억 원……

○**김재운 위원** 도서관입비는 알고 있고 그동안 문화관광부가 독서진흥위원회에 많은 예산은 아닐지라도 꾸준히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입비는 기본인프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독서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독서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이러한 예산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의한국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책을 읽지 않고 지식기반사회를 어떻게 형성을 하며 어떻게 창의한국을 만들 수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창의적인 한국을 내세우고 있는데 독서정책 혹은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문화 활성화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작년부터는

청소년국하고 협조해서 청소년책읽기 사업이라는 지 이런 부분들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제가 청소년국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책읽기운동 홍보대사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정책국에서 이러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되는데 어떻게 창의한국 보고서가 나왔는지 의심스럽기 그지없었고요.

아까 도서관입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한 100억 정도인데 우리나라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215원에 불과합니다. 215원에 불과한 예산 가지고 국민들이……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사교육비입니다. 아이들 교육은 시키고 싶은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교육비를 줄여 주기 위해서라도 도서관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국민 1인당 215원이면 그게 충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서관입비의 대폭적인 확충이 없이 정부가 어떻게 창의한국을 내세우고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사교육비를 하고……

선진국일수록 실업률이 늘수록 도서관입비를 증액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입비 증액을 통해서,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통해서 실업자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 아이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는 것입니다. 국민 1인당 215원에 불과한 도서관입비의 대폭적인 확충 없이는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창의한국은 정말 말 그대로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알맹이를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내세우는 게 2011년까지 몇 개관을 짓기로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750관입니다.

○**김재운 위원** 그러면 그 750관을 짓기 위해서 예산확보가 충분히 연차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들이 교특회계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먼저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가져와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김재운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대도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보면 지방 같은 경우, 시골은 굉장히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불용액 처리되는 예산도 있지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집중하다 보면 공공도서관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율을 보면 공공도서관 보조금 요율이 20%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예.

○김재운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80%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율이 개정되지 않고서 어떻게 지방의 공공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몇 번 지적했습니다. 차등지급률을 적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부가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저희들이 예산처와 실무적으로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처에서는 전반적인 다른 국고보조대상사업들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국고부담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과 한계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아까 몇몇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줄여서라도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을 충족할 수 있고 정보 이용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지식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공도서관은 늘어나고 있고 이용객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서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 대비, 도서관 수 대비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다 할지라도 사서가 없으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알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또 하나는 공공도서관 건립비가 인건비로 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운 위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액이 38

억 원인데 이 중에 24억 3000만 원이 공공도서관 건립비 중에서 전용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아까 불용액 처리가 된 부분들을 가지고 인건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공공도서관건립비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사업비에서도 인건비로 전용된 일이 있습니다. 문화부의 중요한 사업 가운데 몇 가지를 인건비로 전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대구 수성이나 광주, 또 전북 진안 같은 데 그 세 군데 도서관 문제인데 일단 지방비 확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진해서 신청했다가 나중에 또 포기하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 위원 그 부분들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문화관광부문화정책국장 이성원 아마 인건비하고 재해복구비 조로 조금 전용한 것 같습니다.

○김재운 위원 공공도서관건립비 가운데 24억 3000만 원이 인건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관광부가 앞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문화입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의 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놀란 것이 문화관광부 예산이 한 방송사 예산보다도 부족합니다. 또 미래 지향적인 그리고 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을 내세우는 정부가 문화예산을 더 늘리지 않고 한 방송국의 예산만도 못하다면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문화예산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진흥을 이룰 수 있는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대통령께도 건의하시고 기획예산처, 국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잠깐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여기 계신 문화관광위원

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윤 위원** 문예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로또복권수익금, 사적복제보상금제도, 골프장 사업확대·추가건립 그리고 경륜·경정수익금 배분, 토토복권수익금 확보, 기업메세나를 활용한 간접지원 확대 이런 부분들을 죽 예시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로또복권수익금은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적복제보상금제도도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실질적인 기금확보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당시 이회창 후보도 문예진흥기금을 1조 5000억 정도는 조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국가에서 확실하게 문예진흥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실질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실질적인 문예진흥기금 조성방안이 마련되어서 우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을 서면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잠깐 말씀하셔도 좋고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현기영**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창의한국 또 문화입국을 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예술에 배분되는 돈이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문예진흥원이 로또통합복권수익금의 배분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정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해마다 로또복권에서 일정비율이 문화예술 진흥에 올 수 있도록 입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李在五 委員**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술원사무국에서 오신 분, 저 때문에 기다리신다면 제가 국정감사 때 대신할 테니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호** 다음은 최구식 위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남 진주갑의 최구식입니다.

장시간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평소 매우 존경하는 정동채 장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던 작년 2월 4일에 국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때 제93조의2에 정기국회와 관련되는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면, “정기회—정기회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기국회를 얘기합니다—기간 중에 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하는 법률안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처리에 부수하는 법률안에 한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장관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예산결산 이런 문제로 의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정말로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이 없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머리를 써 가지고 약간 문제가 될 만한 법안들을 모조리 쏟아내 가지고 의원들이 제대로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그래서 대충대충 넘겨서 통과시켜 주는 그런 것을 악용한다는 것을 국회에서 감안해 가지고 ‘예산안만 다룬다, 그리고 그 예산안과 관련되는 법률만 정기국회에서 다룬다’ 이런 원칙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나옵니다.

지금 일각에서 신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언론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그 말씀이십니까?

○**최구식 위원** 그것과 관련되는 것인데, 신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최구식 위원** 신문법이 예산부수법안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신문법 중에서 가령 공매제 회사에 대한 지원이랄지 지역언론 육성에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배정된다면 그것도 전혀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그 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구식 위원** 그렇게 치면 우리가 만지는 모든 법이 다 예산과 관련되는 것인데요. 예산과 관계 없는, 말하자면 돈과 관계없는 법안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런 법안도 있지요.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폐지나 개정이 예산과 관련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최구식 위원** 그것도 관련되는 시행령이나 이런 것은 다 예산과 관련이 되는 것이지요. 지금 장관님하고 저하고 그런 말꼬리 잡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니,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물으니까 제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최구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무부처를 맡고 계시니까, 현시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이 대충 몇 대 몇으로 나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 글썬요, 그 수치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최구식 위원** 아시는데 발언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이 아니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을 비교 수치화해 놓은 것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최구식 위원** 아주 많은 조사가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국무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 정권에 계시는 분 중에는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로부터 면책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신문과 방송의 영향력이 어떠한다는 것은 각종 조사에 다 있습니다. 언론을 주무하고 계시는 분이 그것을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다루시는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일 텐데 그러면 이 기본적인 사실까지 잘 모르시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국정을 다루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성실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구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성실한 자세로 임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수치를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데 그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질의하니까 저는 지금 이 자체

도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지 알면서 면책을 받으려고 대답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최구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언론재단에서 조사한 2002년 언론매체의 속성별 점유율 조사가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TV가 66.9%, 신문이 10.3%, 인터넷이 10.7%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 조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 근래에 제가 들은 얘기는 인터넷까지 포함해 가지고 방송이 한 80% 되고 신문이 한 20% 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이랬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리 보수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방송의 영향력이 신문에 비해서는 아주 압도적으로 크다 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문과 방송이 서로 매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신문은 종이와 잉크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방송은 전파를 통해서 합니다. 그 두 가지 미디어 중에서 어느 것이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여론을 주도하는 것이 신문과 방송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보고……

○**최구식 위원** 아니, 내용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매체에 대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파와 문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공공성이 어느 것이 더 강하나? 글썬요……

○**최구식 위원** 그것은 견해의 차이가 아니고 말하자면 모든 학자들, 혹은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방송전파는 국가재산으로 공공재이니까 공공성이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최구식 위원** 예컨대 이런 것이지요. 제가 신문이 마음에 안 들면 1차 찢어 버리면 되고 2차 안 보겠다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방송이 마음에 안 들면 1차 수상기를 꺼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말하자면 신문과 방송이 수용자들이 얼마나 강제적으로 그것을 받게 되는지, 강제적이라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이미 학자들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문에 대한 정부의 규제, 신문에 대한 강제를 계속 하

려는 그런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제가 보기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향력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매체의 본질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부가 신문법을 규제한다 그러시는데 어떤 부분이……

○**최구식 위원** 지금 알려진 신문법의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부가 신문법 제정을 의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구식 위원** 정부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신문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쭙지를 않고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하는 신문법 혹은 그와 유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여러 가지 입법사제가 있지요. 독일의 신문통제법이라든지 또 유럽의 여러 나라의 출판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최구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더 이상 여쭙지를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준비해 온 것은 서면으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원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호 위원** 윤원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준비해 온 질의 중에서 문화산업 관련 기금 통합운용의 필요성 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 문제,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지원확대의 필요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내실화 방안마련에 대해서는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은 정부의 57개 기금에 대하여 기금존치 평가를 하였습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예산에 의존하고 사업의 신축성 운용 필요성이 낮으므로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 사업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보면, 용자사업의 실적이 저조하고 기금에 의한 문화산업 육성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03년도 문화산업진흥기금 결산을 보면 문화상품개발 용자에는 예산액이 290억이었는데 171억만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59%입니다. 또 유통, 시설현대화 용자에는 예산액이 320억이었는데 37%인 119억만이 집행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이 조성된 99년 이후로 용자사업의 지원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용자사업을 이차율 차이만 국가에서 보조하고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대출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국가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하였는데 문화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전적으로 금융기관과 시장기능에만 의존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개발기금 결산에 대한 건입니다.

2003년도 기금의 지출 실적을 보면 관광시설 등 용자에는 2150억 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적은 1775억 원입니다. 관광시설 등 용자의 세부항목인 관광숙박시설 건설이나 개보수는 계획 대비 실적이 90% 가까이 달성되었으나 국민관광시설 확충은 60%에도 미치지 못한 저조한 실적입니다.

특히 국민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은 용자규모 자체도 전체사업 대비 아주 미미한 수준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용자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종합휴양시설이나 테마파크 등 국민관광시설 확충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의 지원을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숙박시설 건설자금 용자의 경우는 산업은행이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탄력적인 기금운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기관의 요건만 명시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면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수요자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에 관한 건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의 누적조성 규모는 4083억 원이며 2003년도 사업비 집행실적은 145억 원 수준입니다. 기획예산처 기금운용평가단은 기금사업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소액으로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몇 가지 행사에 대한 지원 외에는 청소년육성기금을 대표할 만한 사업이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000억 원 이상의 기금 순 조성액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청소년기금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평가결과에 대하여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기금규모에 비하여 사업비가 지나치게 적고 기금을 대표할 만한 사업이 없어서 이러한 지적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사업 발굴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구상 중인 청소년육성기금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관련 건입니다. 청소년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2003년도 1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은 655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수련관이 116개, 문화의 집이 139개 이렇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0개, 강원도가 77개 등으로 지역 간의 편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각 시·도의 청소년이 어느 지역의 어떤 종류의 수련시설을 주로 이용하는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수련시설을 연간 이용하는 횟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원고대로 안 하고 드리겠습니다. 수련원의 개수에 대한 연간 이용일수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수련시설을 가출청소년이나 장애청소년 또 중퇴청소년들을 위한 수용시설로 이용하는 것도 청소년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장관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륜·경정사업의 매출감소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륜 사업의 2003년도 매출은 1조 8699억 원인데 2002년도에 비해서 18.3%가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개장된 경정사업의 경우 2003년도 매출은 3266억 원으로 목표 대비 63%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륜과 경정사업의 수익금은 체육진흥기금에 40%, 청소년육성기금에 30%가 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된다면 두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출감소가 기금의 재원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계획 중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잔디·우레탄 체육시설 지원 관련 건입니다.

이 시설이 굉장히 지역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보면 전국적으로 109개소에 시설을 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의 예산이 증가해 왔는데 앞으로도 전국의 대다수의 초·중·고·대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도록 할 수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교뿐 아니고 지역의 체육 시설에도 잔디·우레탄 시설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역의 체육시설이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 서구인데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서구 체육시설에 등록을 했었는데 울이 세서 떨어졌거든요. 지방의 도시에 이런 시설을 가급적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기금을 좀더 많이 확충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 국립부산국악원 건립 사업 관련입니다.

KDI의 국립부산국악원의 타당성 재검증 결과 보고서는 부산국악원이 국립국악원으로서 국고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국악원과 차별화된 기능과 특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장관님께서서는 부산국악원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국악원에 2003년도에 배정된 예산이 미처 다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건립사업이 예

정대로 2006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상호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앞에 정종복 위원님이 계신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관련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경주를 다녀왔는데 경주에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분이 문화유산 해설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경주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건립사업이 중단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리고 이 사업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 3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경주에서 아마 지방예산을 조성 못 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방예산이 조성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경주가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사·문화적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토의 동쪽에 경주 역사문화도시, 광주에 광주 문화중심도시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적인 위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철 위원 한 해 동안 예산집행을 해 보니까 어떻게 잘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심재철 위원 지적된 것은 다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심재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물론입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에도 장관이 똑같이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내년에는 예산 잘 반영하겠습니다” 인사말이 똑같이 그래요. 글자 한자 안 틀리는데, 차관, 그랬지요?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일부는 개선된 것이 있고 일부는……

○심재철 위원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대개 몇 건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좀 이따 답변 끝날 때 대충 한번 살펴보세요. 검토보고서에서 대충 보니까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조금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왜 그러는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조금에 차등보조금제가 있는데 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지도 얘기해 주십시오.

지자체 재정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법에 근거가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이 관료적이다, 융통성을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경북북부의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근본적인 재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한 적이 있지요.

○심재철 위원 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해 봤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그대로 가자’, 결국 그랬던 것 같은데,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 오늘 이 검토보고서에서도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존중은 하지만 지자체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과감히 정비한다라는 그 ‘과감히’라는 말에 대해서……

○심재철 위원 그 점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적은 예산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하는

데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술인회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종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예종이 자발적인 협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론적인 의미에서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협조 안 했고 앞으로도 협조를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지요? 한번 시한을 잡았는데 2004년으로 다시 또 한번 늦추어졌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이번에는 어찌할 것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이번에는 10월 31일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환수가 불가피합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산업개발원 쪽에 어느 분이 실무 담당 책임이십니까?

보고서에서 선택과 집중의 문제점 지적한 것은 본인도 인식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영진 부분적으로는 동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은 1%도 안 되게 어이없게 되어 있다, 적은 예산으로 할 바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문화산업국장 박영진 예.

○심재철 위원 그 부분이 무엇을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인지 조금 이따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게임부문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높일 것이냐, 그래서 우리 정책 방향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광공사 쪽 담당자 계십니까?

국고하고 기금하고 중복지원된다고 지적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의하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예.

○심재철 위원 이 부분 고쳐야 되겠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일원화하는 노력이 연구 중인 것으로……

○심재철 위원 어떻게 고칠 것인지 상세하게 이 부분 서면으로 답변하십시오.

○한국관광공사사장 유건 예.

○심재철 위원 장관께서도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는 것 아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그다음 최초로 보조금 줄 때 사업을 매칭펀드방식으로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할 때 지자체가 자본 조달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을 바꾸면 앞으로 이런 낭비가 없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답변할 때 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앙극장장 계시지요?

회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립중앙극장장 김명곤 예, 알고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작년에 지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국립중앙극장장 김명곤 있었습니다.

○심재철 위원 왜 안 고쳤습니까?

○국립중앙극장장 김명곤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새롭게……

○심재철 위원 조금 이따가 이 부분도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왜 아무런 개선이 없었는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고칠 것인지, 고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립중앙극장장 김명곤 있다고 봅니다.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책을 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지출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연례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예.

○심재철 위원 그런데도 지금 눈 딱 감고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차관이 오래 계셨을 테니까 차관한테 여쭙는 것인데, ‘어차피 예비비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그냥 하고, 결산 해 봐야 눈 딱 감고 육한번 먹지’ 하고 완전히 뭉개고 지나가시는데, 이번 예산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자르겠습니다.

감수하실 용의가 되어 있지요? 정원 T/O 문제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기준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차관 배종신 매년도 사정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호봉계산이랄지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데 정원과 정원의 기준이…… 지금 63명이나 나왔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T/O에 관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호봉계산에 따른 금액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번 예산편성에서도 그렇게 할 것인지, 내년에도 똑같이 반복할 것인지 그 의지를 나중에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관광공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중복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각종 예술행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극제가 그렇습니다. 예술행사에 대해서도 국고와 기금이 중복지원되고 있는데 장관님, 국고와 기금은 각각 용도가 다르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용도가 다르지만 문화예산이 이렇게……

○심재철 위원 중복될 수도 있지만 구분돼서 지원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예술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문예진흥기금하고 국고하고 중복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되어 가지고 서울시내 영화입장료를 450원 정도 인하할 수가 있는데 인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화입장료를 인상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업계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영화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하면서, 폐지된 것이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그 이득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영화계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원칙적인 점에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기금이 폐지가 됐으니까 그 혜택은 국민이 누려야 된다

는 것에 대해서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심재철 위원 그런 점에서 당연히 극장입장료가 400원 정도는 인하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십시오. 보통 7000원 잡을 때 6.5% 하면 450원 정도 나옵니다.

마져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 문제보도로 분류된 것이 지금까지 81건이었습니다. 문광부에서는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악의적이냐 그냥 사실보도냐 건전한 비판이냐 긍정보도냐 오보냐의 5개로 하고 있는데, 그 81건을 형태별로 보면 신문에 96%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송은 딱 3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은 별달리 문제보도가 없었다는 얘기고, 이것을 매체별로 보면 조선 동아 중앙이 악의적인 비판으로 분류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신문법과 관련해서 언론 3사의 점유율을 얼마로 제한해야 된다는 기사에 대해서 조선 동아 중앙이 보도했던 내용들은 전부 악의적 비판으로 분류되었고, 반면에 한겨레 경향 국민 세계 등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보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보도냐, 아니면 악의적인 보도냐라는 것은 가치판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심재철 위원님!

○심재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보도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보도성향 분석이 편향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인지, 주제가 서로 다르면 비교가 안 되는데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가치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어서 분류율을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성향 분석이 크게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일부 비판신문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인 사항들이 얼마만큼 잘 개선되어서 올해 예산편성안에는 얼마만큼 잘 반영을 할 것인지, 올해는 잘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물론입니다.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 하는 것은 못 하고 이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못 하면 못 한 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철 위원** 최대한 반영하시겠지요? 연례적인 립 서비스가 안 나오도록 하시겠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심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할 때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위원** 민병두입니다.

저에게 작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나라를 좀더 창의력과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나라,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보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공간, 문화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령 서울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시카고 혹은 푸동 등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상상력, 창의력에서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카고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도시이고 가장 유명한 건축학과가 밀집되어 있지요. 푸동 같은 경우는 동일한 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한테는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티븐 스피버그가 15년 전인가 인터뷰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가 이처럼 위대한 감독으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부모의 가르침이 중요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오래된 스틸 카메라 한 대를 주고 마음대로 찍으라고 했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항상 부모로부터 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지난해에 문화예술미디어교육 부분에 강사풀제로 약 50억 원을 배정했더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적은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예를 보면 지역의 공무원 중에 가령 바이올린을 켤 줄 아는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바이올린 강의를 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역사회를 잘 활용하면 이처럼 문화예술미디어교육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

원이 많은데, 우선 DB화를 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도 문화예술미디어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어떻게 시스템화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우리 예술교육팀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병두 위원** 관련된 질의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의 규모가 연간 8000억 달러, 고용규모는 8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700억 달러, 고용규모 100만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8.8% 인가 됩니다. 일반 실업률의 2배가 될 텐데 산업자원부나 이런 쪽에서는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문화지식국가, 문화강국을 지향한다고 한다면 문화산업 부분이 투자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젊은 인력을 활용하고 결합할 수 있는, 청년실업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문광부에서 청년실업과 문화산업 부분을 연계해서 생각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제가 청소년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 정도만 알고 있으니까 보충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업무에 보호업무와 육성업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여성부로 넘어간 겁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아닙니다. 정부혁신위원회에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총리주재 회의에서 그 문제를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민병두 위원** 청소년 보호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에 레저 관련 혹은 교통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아이들이 1500명 정도 됩니다. 아이가 한 명 죽을 때 대개 부상자가 그와 관련해서 4만 내지 5만 명 생긴다고 합니다. 씨랜드 사건 이후에 청소년수련원 안전시설 점검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이슈화되어서 예산을 배정했고 지난해에도 약 1억 원 정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안전시설을 점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

나라 레저 관련된 아이들 사고, 이것을 DB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범죄 DB를 만드는데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범죄 DB를 만들게 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계절에 어떤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미국에서 연간 아이들이 놀러가서 혹은 수련 가서 죽는 아이들이……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인데 죽는 아이들이 연간 몇 천 명씩 되는데 이런 것을 DB화 하면 기초 자치 체널 이런 데서 좀더 안전대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 레저 액시던트 서베일런스(Leisure Accident Surveillance)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레저 시설에서 발생한 각종 아이들의 사고에 대해서 DB화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단순히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DB를 만드는 것으로도 좀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 부 간부님들은 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적극 활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민병두 위원 지난해 대통령께서 아동보호 원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가 8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레저 관련 어린이 사고에 관한 DB 문제를 제안했으니까 몇 가지 더 지적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문화관광부에서 관련 부서와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령 유럽 같은 경우 학교 급식만 하더라도 15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납품 업체에서 잘못된 재료를 납품한 것인지 아니면 영양사가 관리를 잘못된 것인지 나중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린이차를 하루에 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지입차에 한해서는 표준색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지요. 노란색을 의무적으로 쓰는 것은 지입차가 아닌 것에 한해서인데 그래서 90%의 어린이들이 실제로 차량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차에 대해서도 표준색이 정해져 있지 않지요.

또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도 시설 기준은 있는데 가령 그네의 길이가 얼마면 그 밑에 모래는 얼마만큼 쌓아야 된단지 이런 설치기준 같은 것 보수 관련 규정 같은 것이 전혀 없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없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단지 자전거를 탄단지 할 때 헬멧을 쓰게 돼 있지만 그것에 대한 보호 규정도 전혀 없지요. 유럽 같은 경우는 신생아가 병원에서 나갈 때 카시트를 샀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아동보호 원년을 선언했어도 많은 부처로 흩어져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다른 부서와 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카지노 산업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천영세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관광 부존자원이 되게 빈약합니다. 아날로그 문명강국이라고 하기에는 파리나 런던 로마와 같은 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 문명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문명강국으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우리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로리다, 라스베가스 이런 곳들이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출발했기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레저·관광 복합도시를 만들 때도 주변 도시들, 주변의 이웃 국가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많이 생각하셔야 한다고 보고, 카지노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스베가스나 마카오에 가서 카지노 하고 싶은 것이 일반 사람들의 꿈인데 한국의 카지노산업도 어떤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좀더 연구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주도의 8개 카지노 시설 같은 경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서울에 두 곳, 강남 강북 한 곳, 부산의 한 곳에 새로 카지노 시설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가령 이런 적자를 면치 못하

고 있는 제주도의 카지노산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한 다든지 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 지난번 임시국회 본 상임위에서 정 장관님께서 광주 경주 부산 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직속하의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어떻게 하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이재웅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그것은 그대로 가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8월 20일 강원 지역혁신발전토론회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부문별로 매년 5%씩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발언하셨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경상비에서 그렇게 절약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웅 위원 듣고 계셨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부산지역혁신발전토론회에서는 올해 이후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기존의 10%는 무조건 잘라내겠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경상비 10%를 절약하겠다 그 말씀이십니다.

○이재웅 위원 이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지금 정부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10% 잘라낼 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경상비 부문에서 10% 잘라내자고 하면 우리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의지를 피력하신 것으로 보고……

○이재웅 위원 아, 의지를 피력하신 것이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지금 대통령 말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이재웅 위원 대통령께서는 왜 장관을 힘들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아무 데나 가서, 혁신발전토론회 같은 데에서 불쑥불쑥 하시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대통령께 말씀을 좀 하십시오. 이런 것 좀 함부로 말씀하지 마시라고……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

○이재웅 위원 5%는 어떻게 절약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부 전 부처에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있지요? 예산회계법에 예산성과금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모르세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좀 정확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럼 조금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릴까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여쭙기로 하고,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용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용자사업이 거의 50%에 달하고 여유자금, 즉 저축을 해 놓은 게 지금 현재 거의 45%가 조금 넘네요.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연구기관을 지원한다든지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0.5%, 5.3%, 0.1%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쓰는 데는 돈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묶어놓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자사업을 하더라도 한 300억 정도 있으면 충분한데 돈이 8000억 가까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국외 여행자들이 내는 돈에다가 카지노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금 이런 것들이 모여서 형성되

는 기금이거든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지노 사업은 그렇게 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국외 여행자 납부금이 1만 원씩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외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조세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공항에 나가면서 내는 돈은 외국인들의 경우를 볼 적에 타 국에 세금을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공항세는 지금 당장 없애는 것은 어렵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지금 당장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이재웅 위원** 뭐 때문에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때문에 그렇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내 관광 인프라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것으로 지금 전부 국내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국내 관광 인프라 지원을 뭘 하고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관광국장, 빨리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국납부금으로 들어오는 관광기금의 대부분은 민간에 있는 관광 인프라, 숙박 시설이나 이런 인프라 지원에 주로 쓰이고요. 국내 관광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데 상당히 쓰입니다.

○**이재웅 위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숙박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자사업이지요?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예.

○**이재웅 위원** 용자사업 이자 얼마 받습니까?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지금 4% 이하입니다.

○**이재웅 위원** 다른 데 시중금리는 어떻습니까? 산업은행의 시중금리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시중금리하고 격차가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요.

○**이재웅 위원** 산업은행은 얼마입니까? 그것 가지고 지금 개발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그래도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금리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재웅 위원** 일반 시중금리보다 좀 싼데 그것을 제하고 나면 한 300억 원만 있으면 지금 용자사업 하고 있는 것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왜 이 기금으로 전부 다 관광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연구기관 지원이라든지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연구기관은 지금 0.5%예요. 그다음에 외래 관광객 유치 지원은 5.3%이고 기금관리비가 0.1%로 이것은 인건비이겠지요? 여유자금 45.7%는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여유자금은 각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관광진흥개발 한다면서 거기에 왜 넣어 놓아요?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원래 민간 부문의 용자를 위해서는 거의 다 쓸 수 있도록까지 되어 있는데요. 용자가 회수되는 부분……

○**이재웅 위원** 용자만이 관광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기금을 놔두고 돈을 써혀 두냐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지원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유자금 운용은 더 적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부관광국장 김찬** 여유자금이라는 게 용자가 회수되는 금액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뭘 수 있으면 안 쓰려고……

○**이재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두셨습니까?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기획관리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예산성과금이라는 게 저희 제도상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재웅 위원** 예산 절감 또는 국고 수입 및 국유재산 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것……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그것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대개 일반 부처의 경우에 그것을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편성하는 부처가 거의 없습니다.

○**이재웅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그것이 실제로, 특히 저희 부처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을 해서 실제로 경비가 집행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령 국세청이라든가 관세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업비나 이런 지출항목에서 저희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부처 예산, 부문별 예산을 절약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이지요?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저희 부 같은 경우는 특히 일반적인 예산 절감 부문, 가령 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청이나 국세청과 달리 특별하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문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재웅 위원**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5%라도 절약하고 앞으로 10%라도 덜어내겠다고 이렇게 노심초사하시는데 문화관광부 직원들은 절약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아니지요. 절약은 하는데……

○**이재웅 위원** 절약해서 단 얼마라도 성과금을 직원들에게 줘서 앞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국가 재산을 정말 제대로 바로 쓰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을 때는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웅 위원**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예, 그렇습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절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물론입니다.

○**이재웅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나 절약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예.

○**이재웅 위원** 한 5% 정도 절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부기획관리실장 유진룡**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저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그동안 18개 중앙 정부부처 중에 가장 도서를 많이 구입하는 곳이 어딜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이 도서관과 도서구입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도서구입의 문제는 단순히 책을 많이 보자고 하는 교양 운동을 넘어서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출판산업을 공공구매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취지의 대단히 중요한,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출판산업을 공공구매 형태로 일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등은 국방부이고요. 2등이 환경부, 3등이 문화관광부였습니다. 이것은 구입량 기준이고요. 구입 예산 순위로 보면 1위가 통일부이고 문화관광부는 1100만 원으로 11위였습니다. 물론 도서구입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수많은 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문화관광부 차원에서 구입하는 도서량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각 부서와 산하기관, 여러 종합적인 정부부처들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도서만 제대로 구입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의 아사 상태에 있는 출판계에 상당한 도

움을 줄 수 있을 뿐더러 특히 전문 출판사가 의욕을 가지고 전문적인 출판에 매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출판사가 그동안 너무 일반 베스트셀러에 매진해서 전문 출판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출판산업을 진흥하는 데 앞장서야 할 문화관광부가 오히려 자체적인 도서구입에 있어서 타 부처보다 뒤지고 있는 것은 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의 서두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 문화 산업을 앞으로 우리나라 10대 성장동력 중의 하나로 삼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문화관광부장관님께서도 이 점에 동의하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우상호 위원 지난 몇 년간 문화관광부의 문화산업 분야의 예산 추이를 볼 것 같으면 2001년도 1375억에서 2002년도 1958억으로 증가한 이후에 2003년도 1890억, 그리고 2004년도 1675억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중요한 10대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문화관광부는 오히려 문화산업 분야의 지원 예산을 형편없이 삭감해 왔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구입량의 형편 없음, 또 이러한 문화산업 지원 예산의 감소 추세는 오히려 이러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담당 주무부서가 말로는 진흥을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뭔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따라서 외부적으로 문화관광부 예산을 늘려달라고 주문할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과감하게 중점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산업 육성에 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위원님, 내년부터는 증액을 했고요 문광부 예산이 보통 연간 한 1조 정도 되고 기금의 전체 규모도 1조 정도 되는데 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가 국고지원을 조금 줄였습니다마는 2005년에는 다시 확대했습니다.

○우상호 위원 방금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있어서 문화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줄여도 괜찮다고 예산 부처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문화산업진흥기금 사업의 호

육성과 적절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대로 문화산업진흥기금이 용자사업에 치중하면서도 그 용자사업조차 집행률이 대단히 저조해서 문화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한다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도 않고 용자조차도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용자사업이 저조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자를 받으려면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개 창조를 해서 먹고사는데 돈을 지원하면서 담보를 요구하면 가져갈 집이나 건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건물 있고, 집이 있어서 담보를 잡힐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만 문화산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창조력에만 지원하겠다는 형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문화산업진흥기금이 담보를 가지고 돈을 더 타낼 수 있는 데에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의 전체 규모도 문제지만 그나마 갖고 있는 기금조차도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쓰일 수 없었다, 아까 완성보증보험제도 도입으로 제도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기술신포증기금과 완성보증보험제도를 통해서 기술이 있으면 담보가 없어도 그 기술을 인정해서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위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마는 이후의 구체적인 정책 변화과정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한류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만나서도 ‘겨울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베트남의 상류층 여성들은 자기들끼리 집에 모여서 한국드라마를 보면서 차를 마시는 것을 아주 고급스러운 문화로 여길 정도입니다. 그리고 매년 1억 명에 달하는 중국인이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 있고 중국공산당은 ‘목욕탕집 사람들’이라는 한국 드라마를 중국공산당이 권장할 만한 모범드라마라고 널리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광부의 한류에 대한 대응을 보면 지난해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 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 외에는 뚜렷한 지원대책이 없

고 그냥 업계 혹은 연예인 개인의 일로 치부해 왔습니다. 도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류, 한류하고 한국의 드라마를 본 얘기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그저 술집에서 우리를 흐뭇하게 하는 안주거리밖에는 안 되고 정책적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한류의 결과는 국가브랜드의 상승 및 연관 산업 유발효과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의 속도도 늦고 사업의 내용도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이 한류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류는 바로 관광산업과 연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러 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관광수지 적자가 30억 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2003년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문 횟수는 1회가 54.3%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2회는 16.7%, 3회는 8.4%, 4회 이상은 20.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반복해서 방문한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적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관광자원이 반복해서 구매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평가를 외국 관광객에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정적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바로 한류와 같은 무형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일본의 중년 여성들이 한국에 오는 것이 소원이라 돈을 모으고 있다는데 이런 여성들을 관광객으로 적극 유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이섬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드라마 찍을 때 있었던 것 중에 아직 남아 있는 것은 의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 부풀고 소녀시절의 감상에 젖어서 한국을 방문했던 상당수의 일본 여성들이 실망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류와 관광의 연결 이런 데 대한 정책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를 반복적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고객에 대한 집중적 관리로 지속적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2003년도 문화관광부 결산에 따르면 외래관광객 유치 홍보사업에 12억 원 그리고 각종 사업에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대부분 행사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외래관광객의 고객정보 확보 및 관리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객에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마는 대단히 중요한 외래관광객에 대해서는 나라, 연령, 직업, 성별, 선호관광 분야 등을 분석해서 그 특성에 따라 홍보의 내용이나 방법을 달리 해서 지속적인 관광수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관련분야의 고객정보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키우자는 큰 비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으로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이번 결산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국고와 기금을 혼재해서 운용할 수밖에 없는 문화관광부의 실태, 원칙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해도 많은 장벽에 부딪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또한 문화관광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안일한 자세를 질타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1999년 1월 정부가 관광진흥5개년계획 즉 관광비전 21이라고 해서 발표한 계획의 2003년도 외래관광객 유치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정확한 숫자는……

○정병국 위원 700만입니다. 그리고 관광수입이 120억 불이고요.

그런데 올 3월에 관광진흥5개년계획 2차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정병국 위원 2008년도 관광객 유치목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1000만 정도……

○정병국 위원 640만 명입니다. 그 계획에 따르

면 2003년도 목표치가 700만이고 2008년도 목표치가 640만 명인데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모든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우고 접근하니까 관광수지의 역조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관광수지 적자가 30억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지책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카지노사업도 허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한국문화 국외홍보 활성화 예산 중에서 1억 3000만 원을 기관운영비인 인건비로 전용을 하고 또 8200만 원은 아예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없는 예산을 만들어 드러도 제대로 쓰지 않고 홍보하지 않는데 어떻게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습니까?

또 인터넷 홍보소프트웨어 개발사업비로 2003년에 5160만 원을—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책정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실태 속에서 가만히 앉아서 관광객 수가 늘어나기를 바라고 관광수지 적자 타령만 하면 변화가 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립현대미술관 관장님 계시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예.

○정병국 위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은 접근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9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563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2003년도에 설계용역비로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 5억은 집행하셨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올해 시설 및 토목공사비로 5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전혀 못 쓰고 있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예.

○정병국 위원 못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을 시내 중심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병국 위원 언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작년 연말부터……

○정병국 위원 작년 연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군기무사가 이전을 하면 그 자리로 간다는 전제하에 문민정부 때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5억이라고 하는 예

산을 편성해서 썼고 올해에도 다른 문화부문에 써야 할 돈도 굉장히 많은데 없는 돈에 55억 원 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쓰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그것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능성이 없다고 이미 많은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예산을 주장한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편성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국립극장만 되고 국립현대미술관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병국 위원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문광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협의 중에 있고 아직은 책임운영기관으로……

○정병국 위원 장관님, 책임운영기관화하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기관장의 자율권을 보장해서……

○정병국 위원 자율권을 보장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수익성을 높이고 또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장님, 국립현대미술관의 존립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술작품 및 자료의 수집 그리고 보존, 전시, 조사 및 연구에 주 목적이 있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를 통해서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또 미술활동의 보급을 통해서 국민에게 미술 문화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을 책임운영기관화해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 장사를 한다면 원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장사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미술관 운영을 해서……

○정병국 위원 그러면 관장님은 이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예, 동의하고 있습니

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국립현대미술관 직장협의회 의의 의견은 관장님 뜻하고는 전혀 다른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가도록 법규를 개정해 달라, 그렇게 해야지 책임운영기관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직장협의회에서 제시한 것은……

○정병국 위원 관장님, 제가 여쭙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법규를 바꾸어가면서까지 국립현대미술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의 장으로서 이러한 책임의식은 갖고 계시어야지요.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법규를 바꾸지 않으면 책임운영기관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직장협의회에서는 요로에다 진정서를 내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의 책자까지 만들어 가지고 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미술계, 문화예술계가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관장님이 그런 입장을 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중에 많은 부분이 과장되어 있거나 왜곡돼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관장님, 본 위원은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그 설립근거에도 나와 있습니다—미술작품을 구입해야 되고 자료를 수집을 해야 되며 또 그것들을 보존하고 전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것이며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립현대미술관장 김윤수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제가 모든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마는 관장님의 그런 의견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마는 중복투자가 되고 부처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서 제대로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IT업무 관련 부분입니다. 지난 2001년 7월에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가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서 부처 간 IT업무 관련 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부처 간에 유

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고 있어서 문화관광부가 지난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감사원에서는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관련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것은 정부 전체의 업무조정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회의를 몇 차례 하고 계획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되지 않아서 이러한 막대한 손실, 예산낭비 또 많은 업체 간에 혼란을 야기시켜서 차라리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중복투자라든가 정부 부처 간의 이기주의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00명 정도의 탈북자가 남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기자가 탈북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연수원에 가 보니까 놀이를 하면서 부를 노래가 없어서 김일성 찬양가를 부르면서 놀이를 하더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 탈북자들에게 우리 문화를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관광부 차원의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연택 체육회 회장님이 계시지요? 올림픽 치르시느라고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목적달성은 하지 못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문광위 소속 위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양태영 오십사태 때 드러난 상황이지만 우리 스포츠외교의 한계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테네올림픽 현장에 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회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장님 혼자서 동분서주하면서 뛰는 모습이 애처로울 정도였습니다. 많은 인력이 갖지만 전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 스포츠계에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어떤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스포츠외교의 인력 풀을 구성하고 외국어 향상 및 스포츠외교 배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스포츠외교의 인력을 양성하고 국제대회·국제회의의 적극 유치, 국제 스포츠지도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 스포츠외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위원입니다.

먼저 장관께 언론개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당의 노웅래 위원께서 1차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정부, 문광부 또 정동채 장관의 좀더 정리된 입장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언론개혁은 아시다시피 시민사회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을 국회가 입법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언론탄압행위,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부분은 군사독재체제하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진상조사 규명을 해야 될 대상은, 아까 노웅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974년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강제해직된 동아투위와 조선투위, 1980년 전두환·노태우 그룹의 신군부 내란에 저항하다가 강제해직된 언론인들의 강제해직사태, 그리고 1962년 쿠데타 군사정권에 의한 부산일보와 부산 MBC의 몰수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자유당 정권 아래에서의 민족일보와 경향신문 폐간사건, 또 박정희 정권 아래서의 월간지 사상계 폐간사건도 함께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신체제 아래서의 동아투위사건 같은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주도했지만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사태는 문광부의 전신인 당시 문화공보부가 관여한 줄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당시 보안사와 당시 문화공보부 그렇게……

○**김재홍 위원** 당시 문화공보부가 명단을 작성하는 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공보부는 지금 문광부의 전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문광부는 당시의 언론인 해

직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협조 차원이 아닙니다.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 지금의 개혁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의 용의를 좀 밝혀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80년의 경우 명단 작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보안사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문공부가 방조를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우선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어디에 숨겨져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내서 공개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요.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에 전두환 일당의 국가변란, 군사쿠데타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국가보위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에 대해서 모조리 자료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간판 하나만 보존되어 있고 다 자료가 멸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봐서 방금 말씀하신 해직언론인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악질적이라고 자기네들이 판단했던 데 대한 등급분류자 정도 외에는 자료들이 없어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홍 위원** 저도 당시 보안사령관 노태우 소장이 사인한 문체언론인, 이른바 시국 불량 언론인들의 A·B·C·D급 분류 명단을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관련기관들에 대한 자료공개를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 과거사진상규명위에서 언론탄압을 반민주적 인권유린 못지않게 그와 동등한 차원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해방후언론탄압에대한진상규명과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특별법을 발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능동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광부의 예산운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과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을 보니까 정말 타당성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또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관리는 제대로 했는지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미집행 보조금이 부당하게 이월된 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거의 다 끝나가는 데의 현재 보조금이 35.2% 이상 미집행금이 남아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지, 감사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 태반은 국고로 반납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이것 남해안 이십몇 개 시·군에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도 보니까 정말 제대로 선정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사업인데 이것 다 끝나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안동의 미집행액이 전체 208억 원의 국고보조금 중에서 57억 원…… 이걸 제일 나은 편입니다. 의성 68억 원 중에서 44억 원 미집행, 청송 23억 원 중에서 18억 원 미집행, 예천 100억 원 중에서 70억 원 미집행, 울진 50억 원 중에서 48억 원 미집행 이런 정도면 이것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해안관광벨트 지원사업에 청해진이—지금의 완도이지요—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지난 7월 말 중국 산둥성 위해지역, 바로 청해진대사장보고의 중국활동 거점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위해시 관광안내원이 “장보고는 당나라 사람이다”라고 관광안내를 하고 있어요. 장보고의 아버지가 당나라 사람인데 신라인으로 귀화해서 와서 살다가 거기에서 장보고를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보고기념관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연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마 지역별로 다 모르시겠지요. 제가 물어보니까 연간 40만 명에 이르는 한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민족의 자랑인 해상왕국의 건설자 장보고를 중국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정부가 파악하고 계신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앞선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남해안관광벨트사업 또 유교문화권관광지원사업이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그 미집행금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밝혀 주십시오.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그래서 지금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이광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2003년도에 전체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서 재조정했습니다.

사업 개수는 71개 사업을 64개 사업으로 줄였고 총 투자액도 대폭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5조 432억 원을 4조 1455억 원으로 줄이고 모든 국고보조금도 취소하고 조속 추진하도록 했는데 아까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하려고 그랬고요.

청해진 장보고 대사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흥 위원** 한창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시끄러울 때인데 정말 분노가 치밀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중앙박물관장님 계시지요?

중국 측의 얘기는 장보고의 부친이 당나라 사람이라는 얘기는 한국인 학자의 연구논문에서 나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장 이근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장보고를 중국인으로 홍보하는 것은 아마 중국 사람들의 또 다른 역사왜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삼국사기 같은 기록을 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또 저희가 장보고 관련 연구를 하는 역사학자들에게도 몇 분 여쭙 봤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김재흥 위원** 제가 중국을 다녀와서 중앙박물관에 학예부가 있어서 이미 서면질의를 보냈고 답변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중국 측에 정부 차원에서 항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중국 측에서는 한국인관광객을 겨냥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투자를 할 때 한국인 장보고에 대한 기념관, 청해진재건사업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좀 답변해 주시지요. 우리 정부가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청해진에 대해서는 지

금 지자체에서, 완도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문화관광부에 그러한 사업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해진이 남해안관광사업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 16대 국회인지 15대 국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광투자나 개발사업이 지역적인 배경이나 또 그 출신 정치인들의 역학관계나 힘을 배경으로 해서 결정되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조사, 필요성, 당위성을 검토해서 엄정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청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하루종일 고생이 많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장관님께 가벼운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아테네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종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저 개인적으로 핸드볼…… 비록 금메달은 놓쳤지만 그게 제일 감동이었습니다.

○**정청래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요. 금메달보다 더 빛나는 은메달,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줬던 경기를 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또 양궁이 강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관한 내용을 제가 여쭙 보고자 합니다. 해마다 메달종목으로 양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이번 올림픽경기에서 동양인 최초로 육상종목 트랙경기 110m 허들경기에서 중국의 류시양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광경도 우리는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해마다 한국 체육의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제적 입지 강화 및 국가위상 제고를 목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여러 국제대회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기획예산처의 발표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003년도 기금운용 평가결과에서 교육·문화·외교 분야 8개 기금 가운데서 2등을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마냥 잘했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국제대회를 지원하는데 지원규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종목별 대회를 국내 개최할 때 지원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종목별 1개 대회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종목 및 대회의 중요성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목별 1개 대회를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류시양 선수가 육상경기에서 금메달을 땀는데 우리는 육상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핸드볼 국제대회는 2년에 한번씩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는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년에 한번씩 지원을 합니다.

우리당의 안민석 위원에 의하면, 이번에 핸드볼 선수가 부족해서 살림을 하고 있는 주부선수들한테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핸드볼이 빛나는 은메달을 딴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핸드볼의 국제대회 지원금액이 2004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메달종목인 코리아국제양궁대회에 대해서 1억 4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라톤에 대해서는 3개 대회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마라톤대회, 조선일보 마라톤대회 그리고 중앙일보 국제하프마라톤대회 세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파악한 후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정청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사 주최 마라톤
대회는 전에는—전에라고 하는 것이 제가 98년도
6월에 체육진흥공단 감사로 처음에 부임했을 때
는—세 언론사의 마라톤대회는 1억 원씩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마라톤이 크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아주 몇 개로 제한된 신문사들
만 마라톤대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마라톤대회 지
원금이 그렇게 나갔었는데 그 후로 마라톤 붐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은 국제대회라고 일컬어지는
큰 신문사의 마라톤대회는 5000만 원으로 줄이고
그 외의 다른 언론사 혹은 기관에서 치르는 마라
톤대회는 적게는 5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
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이저 신문사의
마라톤대회는 기업으로부터 협찬도 받고 참가비
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국민체육진
흥기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핸드볼이라
든가 양궁이라든가 기초종목인 육상이라든가 이
런 데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마
음대로, 그것도 1개 종목에 1개 대회에만 지원하
기로 되어 있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하고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시정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제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정청래 위원 이 문제는 국정감사 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복안을 마
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종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청래 위원 문화산업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산업 관련 예산의 변동치를 보니까 문화관
광부 예산 대비 문화산업국이 2000년도부터 2003
년도에 보면 점유율이 15.3, 11.9, 14.0, 12.7 이렇
게 왔다갔다 소폭으로 증감을 계속하고 있습니
다.

올 초 문화관광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출간한 ‘창의한국’ 중에는 우리의 문화산업을
2008년까지 세계문화산업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대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면, 하여튼 증감은 계속하고 있지

만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산업 선진
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적절치 않아 보
입니다.

예산의 증감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예
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일괄적
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
습니다.

문화관광부의 2003년도 전체 전용액이 92억
58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전
용액의 40%를 차지하는 38억으로 나와 있습니
다.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액 38억 가운데 78.7%
에 해당하는 29억 9300만 원이 공공도서관건립, 문
화콘텐츠 진흥 등 문화관광부의 주요 핵심사업의
사업비를 통해서 조달되었다는 심각한 문제를 지
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장관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공제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것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하여 내년도에 26억을 요청했습니다라는 기획
예산처는 타 부처와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면서 거
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에서는 연구용
역을 위해서 1억이라도 배정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현재까지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습
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청래 위원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예술인의 실태가 상
당히 심각하다 못해 인간적인 연민까지 느낄 정
도입니다. 조사대상 예술인 1947명 가운데 30.9%
가 창작활동과 관련한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리고 월수입 20만 원 이하가 전체의 절반에 이르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인 당신들이 선택한 직업이고
당신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술인공제회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을 바랍니다.

2003년도 결산보고를 보면 예술원사무국,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운영 금액이 9600만 원에 달합니다.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2월 31일 기준에 의하면 현대미술관에서 4명, 국립민속박물관은 11명이 결원입니다.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은 1986년 과천으로 이전할 당시와 현재를 비교해 보면 예산은 5배, 소장작품은 2배, 관람객은 3배 이상 늘었고 덕수궁 미술관 개관에 따른 전문행정 수요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원은 11%가 감축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직원 구성도 학예직 비중이 전체 정원의 20%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예직 직원이 제일 중요한 직원의 포션을 차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박물관의 학예 비율 35% 국립민속박물관의 학예 비율 53%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의한국'에 나와 있는 문화선진국에 대한 목표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저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경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일괄답변을 받을 시간입니다. 여야 간사와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또 문화재청 결산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일괄답변은 모두 서면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노웅래 위원, 이경숙 위원, 이재오 위원, 안민석 위원, 강혜숙 위원, 이계진 위원, 심재철 위원, 윤원호 위원, 최구식 위원, 정병국 위원, 김재홍 위원, 우상호 위원, 민병두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

게 작성해서 질의하신 해당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위원 제 이름이 없는데, 저도 아까 일괄답변을 하라고 그랬는데 서면답변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미경 일괄답변도 모두 서면으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서면 질의·답변 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부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부 소관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이상 5개 기금결산을 각각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부장관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2개 기금결산 기관장 및 임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결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미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재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유홍준 문화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소개와 2003회계연도 문화재청 소관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발령으로 문화재청장을 맡은 유홍준입니다.

밖에서 공식 비공식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문화재의 보존과 연구 또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밖에서 말할 때는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안살림을 말

게 돼 가지고 어떻게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킬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저와 또 다른 시각에서 문화재는 여야가 없다고 모든 위원님께서 그동안 제안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을 받아들여서 하면 그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한편 마음으로 든든하기도 합니다.

예정 어린 지도와 충고를 계속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은 2003년도 문화재 정책 기본방향으로 세 가지를 정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요지인즉슨 보존과 연구와 향유입니다.

지난해 문화재청에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문화재 행정의 효율화와 내실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령 중에서 문화재 수리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도입, 두 번째는 문화재 수리관계자의 의무준수 규정, 세 번째 문화재 외곽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영향검토 절차 규정, 네 번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권한의 일부 시·도 위임 근거 등 문화재보존관리의 법적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시·도 문화재 보수지침 및 설계승인권한의 시·도 위임, 민원이 많은 국가 지정주요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의 마련 등 업무절차를 개선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굳이 문화재청까지 와서 민원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제한적인 부분만 지방으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 정비, 조사연구, 활용, 정보화 등 문화재 관리 제 분야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는 한편 이를 개선·발전시켜 분야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체계적 정비 분야에서는 경기 북부의 포천 반월성지 등 고구려유적을 포함한 제3차 7개 문화권 유적정비 5개년계획 수립 착수, 경주 역사유적지구, 경북 유교문화권, 남해안 관광벨트, 가야 역사문화환경 정비 등 중요 사적지의 특성화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 청사 등 근대문화재 등록 및 조사·목록화 사업 등을 추진했습

니다.

또한 건조물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연차계획에 따라 서울 및 충남·북 석조문화재의 실태조사, 목조문화재의 화재 중해 예방사업을 실시했으며 안동 화회 등 전통 민속마을 정비기반 마련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안동 봉정사 극락전 등 중요 문화재의 직영수리 및 문화재 수리기준·지침의 정비를 통해 문화재 수리공사의 품질향상 제고 등 건조물문화재의 보존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산문화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02년에 이어서 지난해에 전북, 제주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장흥 보림사의 사찰소장 유물전시관 건립, 중요 전적문화재 디지털화 사업, 동산문화재 도난 경보시설 확충사업도 추진했습니다.

매장문화재의 보존·보호 관리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각종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분포현황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출토유물의 과학적 보관·관리를 위해서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를 준공하고 경주, 창원 지역에도 보관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재 분야에서는 가죽신 명장 등 무형문화재 종목을 발굴해서 전승자 확대 및 취약종목 지원사업, 전수교육시설 확충, 명예보유자의료급여법 개정, 시·도 무형문화재까지 국고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무형문화재 제도 운영의 내실화와 보존·전승 지원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분야에서는 천연기념물 보호연구센터 착공, 야생 천연기념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 안내서 발간, 천연기념물 관리기준 및 지침 시행, 천연기념물 순회전시 등 천연기념물 관리를 체계화하고 보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 조선왕궁 복원사업은 1990년부터 왕궁복원정비를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경복궁 근정전을 준공하고 경복궁의 태원전 권역과 창덕궁의 규정각 권역의 복원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궁 궁중의례 및 궁중생활상 재현 전시, 고궁안내원을 상설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하루 50명 3회로 제한한 창덕궁 후원 옥류천 제한개방은 좋은 호평을 받아 앞으로 출입금지구역도 제한 개방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재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북한 문화재 보존 지원을 위한 유네스코신탁기금 출연, 한일문화재교류협정 체결 등 사업을 실시했고 국제홍보를 강화해서 작년 11월에는 판소리가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결작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내년은 해방 60주년, 한일수교 정상화 40주년, 을사보호조약 100주년이 되므로 이에 맞추어서 민간 차원에서 문화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관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권역별 중요유적 조사, 보스톤박물관 등 해외소재 문화재의 조사, 문화재 보존처리약품 등 개발 연구를 실시하였고 대덕연구단지 와 연계한 문화재 연구의 질적 도약을 위해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청사를 대전으로 이전했고 한국 전통문화학교의 실기교육 강화를 위한 기자재 확보 5개년계획 등을 수립해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반의 내실화를 기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정보화 구현을 위하여 문화유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징비록 등 중요 전적문화재의 디지털화, 수요자 중심의 인터넷서비스 보강, 문화재전자행정 구축, 문화재연구소 소장 자료의 DB화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행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우리궁궐지킴이 등 고궁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및 문화재정책 시민참여 활성화 연구 등 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민간참여 확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총액계상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연도말 사업예산 확정에 따른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가 어렵고 원형보수 원칙에 따른 고증 절차,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 사유 발생으로 이월사업이 많았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등 부동산 문화재의 보존과 관련한 국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을 줄여 나가기 위한 예산확보 문제, 경주 등 고도지역의 고도보존법 제정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관리운영 방안 등은 중요한 정책 현안과제에 놓여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 직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재 정책 업무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하여 더한층 분발할 것임을 다짐드리며 2003년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세입 예산현액은 76억 8600만 원에 수납액은 90억 2900만 원으로 예산액보다 13억 42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습니다.

한편 세출 부문에서는 당초 세출 예산액 3383억 18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87억 1800만 원, 예비비 59억 8300만 원, 수입대체경비 초과승인 3억 1700만 원을 합한 3633억 3600만 원이 세출 예산현액입니다. 이 중 3452억 5500만 원을 집행했고 170억 3800만 원은 200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43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운용에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구체적인 결산 내용은 기획관리관으로 하여금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우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규 차장입니다.

이춘근 기획관리관입니다.

송인범 문화재정책국장입니다.

김종혁 사적명승국장입니다.

김창준 문화유산국장입니다.

김봉건 국립문화재연구소장입니다.

이종철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입니다.

이동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손준철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요약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체 세입예산 76억 8693만 원의 17.5%

에 해당하는 13억 4276만 원이 초과 수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도한 초과 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세입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항목입니다.

셋째,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경우도 세입예산의 과소계상으로 인하여 매년 초과 수납이 발생하고 미수납액도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의 신중한 편성과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재청의 적지 않은 연구용역과제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상당수의 과제는 당초 예산에 계상된 연구용역 목적과는 다른 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연간 1000여 건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예산사업이 이월 또는 재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청 예산 집행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동 사업을 총액계상예산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경주·부여·창원 등 지방문화재연구소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분야에만 치중하고 있어 지방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인력구조의 획기적인 개편과 매장문화재의 발굴업무를 발굴전문법인 등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항목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과 남해안관광벨트 사업은 부지매입이나 고층확보를 위한 발굴조사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 실적이 부진합니다.

국고보조금을 전액 일괄하여 교부하는 방식을 시정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계속사업의 경우 중간에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 사업 지역의 열악한 지방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끝으로 문화재청의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한 문화재 피해복구 예비비 57억 7700만 원이 사용결정되었으나 실제로 매우 부진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재의 추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관광부 결산심의 때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 열린우리당 김재홍 위원입니다.

유홍준 교수님의 문화재청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잘 읽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대학 다닐 때부터 학생운동권 선·후배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수 때 문화재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신 지 며칠 되셨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5일 됐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러면 현재 업무과약을 하고 계실 텐데 첫 느낌이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라든가 아니면 ‘뭐가 문제구나’라든가 현재 가장 큰 문제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밖에서 얘기할 적에는 ‘문화재청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 이렇게 방치하는가?’ 또 ‘서울이 600년 왕도인데 서울을 거미줄처럼 지하철을 다 파도록 매장문화재 신고가 단 1건도 없다니 도대체 문화재청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저로서는 정말로 분개하는 사항이면서도 의아스러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고는 이만큼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그와 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재홍 위원** 문화재청은 헌법기관이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김재홍 위원** 우리가 북한문화재 세계유산 등록을 지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유네스코에 신탁기금을 출연했습니다. 연간 10만 달러 해서 총 40만 달러를 출연했는데 그 예산으로 지금까지 약수리 고구려벽화 습기제거나 누수방지를 위한 비용으로 11만 9000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 7월 현재 21만 8000달러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당시의 벽화 훼손 상태로 봤을 때 지금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2000년, 2001년은 단년도 지원으로 10만 불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총액으로 40만 불을 지원했는데 이 돈은 우리도, 북한도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유네스코 직원이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한 것은 전문가 파견해서 기술지도하고 차량, 컴퓨터, 습도계, 약품 구입하고 약수리고분 방수벽 만든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유네스코가 10월에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한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강조해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세 번째로 해외에 산재한 한민족의 문화재에 대한 실태파악과 보호정책인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긍심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보호법을 봤습니다.

제78조(외국문화재의 보호)를 보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문화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느냐만 있지 밖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를 어떻게 실태파악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법 개정이 되기 전이라도 문화재청의 해외 한민족 문화재의 실태파악과 보호정책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문화재청장 유홍준** 그동안에는 부동산 문화재는 없었습니다. 동산 문화재들인데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것과 창고에 있는 것들은 국제교류재단에서 7년 동안 각 주요 박물관을 조사해 조사보고가 나온 것이 있고 또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도 실태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인 소장품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어

렵습니다.

그리고 김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 문화재라고 했을 때는 국내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령 일본 오사카의 동양도자기미술관에는 우리나라 국보보다도 더 뛰어난 문화재들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치밀하게 연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홍 위원** 그래서 문화재보호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아 본 위원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在五 委員** 유홍준 교수가 문화재청장으로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노무현 정부하에서 인사를 제일 잘한 것 압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감사합니다.

○**李在五 委員** 5일밖에 안 된 분께 얘기하기가 그래서 문화재청 결산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하고 자세한 것은 국정감사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장님 계시면 잠깐 나오세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안내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반반이지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봉건** 정규직이 110명이고 비정규직은 그보다 조금 많습니다.

○**李在五 委員** 그리고 비정규직이 거의 석사, 박사이지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봉건** 대부분 학사 이상이고 석사, 박사도 상당수 됩니다.

○**李在五 委員** 그 사람의 한달 급여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이지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봉건** 평균 130만 원 내외입니다.

○**李在五 委員** 그리고 이직률이 높지요?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봉건** 평균 3년 정도 지나면 이직률이 많아집니다.

○**李在五 委員** 제가 가 보고 놀랐는데, 이래서 는 일이 안 됩니다.

청장님, 잘 들으세요.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

려고 합니다. 연구소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제와 인원과 예산을 늘려 정말 제대로 문화재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봉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다음은 이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 위원 국가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화재 정책의 연구와 수립이 필요합니다. 실제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행정기능보다도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문화재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존·관리에 대한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의 관리는 국가만이 전담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유산을 대하는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철학이라는 부분을 널리 알려져서 국민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문화재청 안에는 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재정책국 아래 문화재정책과가 있지만 이 문화재정책과는 문화재 운영과 보존·관리에 대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국내 유일의 문화재연구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만 개소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정책적인 연구보다는 발굴 및 조사업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 없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설립목적에 맞게 정책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조직개편과 예산증액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고구려 역사왜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치고 있지만 문화유산이 갖는 가치나 보존의 의미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과정에서의 중장기적인 정책과제와 함께 특히 남북관계를 통해 문화재유산 보호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정책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예산이 300억인데 이것 턱 없이 부족하고 이것으로는 가

능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국가 예산 대비 1% 정도가 확보돼야 그나마 우리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종목이 425종목입니다. 그런데 전수활동예산 지원은 겨우 41억 원이고 나머지는 전수교육관에 대한, 건물 짓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이런 예산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이월되고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수활동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사실 문화재청이 향후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이 금년에 차관청이 됐습니다마는 처음 출발은 교육부의 문화재관리국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조가 관리·보존으로 짜여 있었는데 이제는 문화재청이 됐으니까 정책국을 강화해서 우리도 청사진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해서도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충에 있어 어느 정도 예산이면 되겠느냐 하는 질의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모두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이만큼 유지된 것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광철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OECD 30개 회원국가 중 29위입니다. 30위가 슬로바키아이고 28위가 헝가리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으로 따라 가려 해도 1조 2000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조 2000억의 반만 준다고 해도 7000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반인 3500억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조직과 예산이 확대된다면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 직원들은 정말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여건들이 이와 같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자는 213명이고

조교가 320명인데 전수자들 월 100만 원씩 지급하고 조교에게는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생계 극빈자인 자산 3000만 원 이하 24명에게는 연 500만 원, 5000만 원 이하 15명에게는 3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이 아주 취약한 45개 분야는 별도로 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매입비 1억 원이 있어서 더 빈한한 사람은 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은 이 중에는 돈을 안 줘도 되는 사람이 10%, 그리고 인간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사업상 큰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이 5%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달에 100만 원씩을 주어야 되는지, 형평성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100만 원씩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위원 박형준입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께서서는 노무현 정부 이래 가장 잘된 인사라고 했지만 저는 김대중 정부 이래 가장 잘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홍준 교수님이 문화재청장으로 오게 된 것은 우리 문화재 보존과 발굴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를 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책임자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크면 책임도 그만큼 무거워집니다. 아마 내년 이맘 때 우리의 기대가 얼마나 충족이 될지를 생각하시면 어깨가 더욱 무거우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재 정책에는 적극적 문화재 정책과 소극적 문화재 정책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문화재 정책이 인력, 예산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 문화재 정책이 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결산을 보면서 이런 한계 내에서도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문화재청이 독립된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겠습니까마는 사실 문화재청 같은 곳이야말로 문화재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조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전문가 조직이 아닌 그

야말로 문화재를 알고 그런 안목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화정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이기도 한데, 현재 문화재청 내에 학예관 출신이라든지 문화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연구소와 같이 비교하면 5대 5 됩니다마는 연구소에 있는 학예연구원을 빼고 실제 청에서 일하는 비율을 보면 8 대 2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준 위원 그래서 인력구조를 행정조직이 아닌 전문가시스템으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세워서서 집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예산을 설득을 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예산운용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국고 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 교부액인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약 83%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쓸 수 있는데 못 쓴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4년 동안이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근본적인 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어떤 관계 형성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저도 업무 파악하면서 가장 이상한 부분이어서 자세히 내용을 조사해 봤는데 예산 이월이 심했던 것은 구조 자체였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그것을 또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이렇게 쓰겠다라고 확정되는 것이 3월입니다. 그때 돼서 우리가 지방에 얼마 준다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국보와 보물은 5 대 5, 기타 사적은 7 대 3으로 그쪽에서 돈을 전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부터 10월에 소위 가내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줄지도 모르니까 너희 예산 편성해라' 하는 것으로 하는데 가내시는 기획예산처에 가면 깎이기 때문에 한 8, 90%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고 봐서 돈이 이월되지 않고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준 위원 지금 국보 84호인 서산 마애 삼존불상 등 23건의 문화재가 위험경보가 내려진 지 오래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문제가 제기된 것들은 빨리빨리 보존을 해 주어야 문화재청이 앞으로 예산을 따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뭐 하느냐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지요.

지난 6일에 경복궁 경희루 앞에서 제9차 국제검사협회 연례 총회가 개최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재청장 유홍준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 장소를 사용하려면 허가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제가 들어와서 업무 인수를 받을 때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의 사례를 보니까 두 번 사용한 예가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도 여성지도자대회를 하면서 야외집회를 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대한항공에서 스카이라인 회사들하고 한국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사용한 것이 있고, 이번에 세계검사대회가 세 번째이고……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때그때마다 상황판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현재 내규가 없어서 내규를 만들라고 바로 지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내규가 없었습니다.

○이경숙 위원 내규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이 신청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재청에서 검찰총장에게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실체는 어땠느냐 하면 강강술래를 하면서 잔디밭이 굉장히 엉망이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심을 구워 먹었더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궁내에서는 식사를 삼갑시다” 플래카드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보냈고 이러 이러한 것은 금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냥 공문만 보내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사실 저도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그날 저녁에 여기에 잠깐 가 봤습니다. 그런데 연회를 허가했기 때문에 식사는 할 수밖에 없었고, 보니까 호텔에서 요리를 해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 전에 이미 허가 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당부만 드리고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복궁하고 경주 안압지의 경우에, 지금 안압지는 이미 야간공개를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은 서울에서 야간공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서울에 온 관광객이 밤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가 알기에도 검사들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준 것만은 아니고요. 이날 행사를 하면서 이들이 500명이 모이는 국제회의기 때문에 그런 호텔에서 식사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신청하는 것은—지금 몇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할 것은 또 시행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일본 검찰총장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국제검사협회 회장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이 이렇게 환상적일 줄은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의 활용방법의 하나로서 경복궁하고 경주 안압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공문에 그런 이야기를 넣지 말든가, 공문에는 금지를 해 놓고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허가할 때와 이것을 어떻

게 하면서 문화유적을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 대책을 마련하면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이경숙 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우선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우선 이 지적된 사항을 청장이 부임하시자마자 현장에 가서 확인하셨다는 게 안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도 우리 청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문화재라고 해서 무조건 '접근 금지' 그리고 박제된 양 그냥 보관만 하는 것이 문화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북궁과 같이 아주 좋은 문화적 유산은 세계만방에 알려야 되고 국제회의가 있을 때는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면 많이 만찬장이나 연회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도 그렇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검찰총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세 가지의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수사항을 엄연히 위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취사, 인화물질을 갖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직접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게끔 규정을 했는데도 거기에서 가스레인을 켜서 고기를 직접 굽는 행위를 했고, 또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 기타 동물 등 반입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화물질이 분명히 들어온 것이지요. 그다음에 화재 발생 시 긴급대처를 위해서 행사현장에 소방차나 물차 대기를 조치하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지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청장님까지 나가서 보실 정도라고 하면 청에서 담당자는 분명히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러한 것들이 재발되지 않고 또 이러한 장소를 대여하는 데 있어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검사대회지만 특권층들만이 누리는 장이다 이런 오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예.

○정병국 위원 다음 2003년도 문화재청 예산 전체를 보면…… 소외지역 및 장애인지원사업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사업에 2억 원, 선정릉에 장애인 접근로 및 산책로 시범 설치사업에 600만 원, 장애인 생산물 우선구매에 3700만 원 등 총 2억 4300만 원이 들어갔고 또 무형문화재보유자 등이 문화소외지역, 장애인시설 등을 방문해 갖고 지원해 주는 데에 들어간 예산까지 해서 토털 3억 2000만 원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전체 예산의 0.1%에 그칩니다. 전체 예산에 비하면 너무 적지 않은가…… 그래서 소외지역이나 소외자들, 그러니까 장애인과 같은 분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문화재를 관람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더 많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재홍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습니다마는, 남북 문화재 교류와 관련해 유네스코에 40만 달러를 신탁기금을 했는데 지금 반 이상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유네스코에서 북한과 협의를 해야 돼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네스코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유네스코에서 집행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북한과 문화재 교류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고요.

그다음에 북한과의 빈번한 교류로 인해 가지고 비무장지대 부근의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이미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

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부근의 문화재 조사도 보다 활성화되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홍 위원님께서 여쭙 보셨나요? 청장님으로 들어와서 보시니까 가장 문제가 뭐냐라고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인력과 예산의 한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문화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 보고 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문화재청장님을 차관급으로 올리는 데 4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여야 문화관광위원들이 다 동의하고 앞장서 가지고 하는 데도 4년 걸렸고 그나마 지금 청장님은 차관급으로 오셨고 오늘 직제를 보니까 국장도 한 분 더 느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청의 인력을 확보해서 이것 관리한다고 하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관리의 주체가 누구니까? 현재 청에서 책임은 맡고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주체는 지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 지자체에 문화재 관리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 학예사가 몇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유홍준 1.6명 됩니다.

○정병국 위원 1.6명이라고 하는 게 어느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1.6명이고 학예사는 반도 안 됩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학예사는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 담당자는 있는데 일반직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관리하려고 하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을 하는 게 아니라 보수업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것 그렇게 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해라 하면서 오히려 원형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6대 문화관광위원회 때 문화재관리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서 민간 시스템을 구축해 보자 그래 갖고 ‘문화재 119단’을 구축해 보자고 하는 연구보고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화재청에서 그에 대한 답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결국은 문화재청의 관리들만 가지고 이것을 접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

게 하면 민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 그것을 보시고 청장님의 의견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 자리에서 1분만이라도 대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만 지방청이 없습니다. 산림청, 조달청 어디고 다 지방청이 있는데 문화재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학예연구원을 쓰라고 얘기해 봤자 그 사람들이 쓰지도 않고 학예연구원이 들어가서 일반 공무원 틈에서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배치할 학예연구원을 한군데로 모아서 전국에 한 네 군데 내지 다섯 군데에 지방청을 만들어 주시면…… 또 현재 저희 지방연구소가 경주 창원 부여에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플러스 해 가지고 지방연구소를 지방청으로 해 주시면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최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구식 위원 제가 오늘 운영위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자리를 자꾸 비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2분 30초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남 진주갑의 최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과 박형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노무현 정부의 적재적소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유홍준 선배는—저는 ‘유 선배’라는 얘기가 입에 익습시다마는—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큐’를 몇 단계 올린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큐라는 말은 IQ, EQ라는 말에서 원용해 가지고 문화지수를 제가 지금 즉석에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명언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여행하면서 의미와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문화인 행정가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크게 성공적이었던 평가를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유 청장님께서도 책상물림이라기보다는 장사를 좀 할 줄 아는 학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성공을 하시는 행정가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만 하면 늘 외국을, 불란서를, 그리스를 부러워합니다마는 우리 청장님께

서 문화재청장으로서의 소임을 잘 완수하시고 그래서 승승장구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수명이 5년, 10년 가는 대문화행정가가 있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자랑스러운 문화를 물려줬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으로 IT, BT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최첨단산업은 문화재산업, 관광산업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더라도 땅 조금만 파면 엄청난 관광자원과 문화재가 있다고 그러합니다. 거기에다가 사연을 좀 붙여넣고 그것을 세계적으로 팔면 그것 가지고 다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새 문화재청장으로서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관광산업의 골자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오랫동안 묵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박 4일 묵어갈 사람이 관광을 위해서 하루를 더 묵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암만 안 써도 200불, 300불을 한국에다 떨어뜨려 놓고 가야 됩니다. 누가 먹든지 그 돈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아 놔야 되는 것이 음식과 숙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기념품 판매입니다.

숙박, 음식과 관련되어서 이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나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집중적이지 못하고 여기저기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집중적인 공약을 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와 광주가 합쳐 가지고 전라도의 관광지를 설명하면서 흑산도, 홍도를 외국인에게 영문으로 해서 보내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 지역, 안동지역, 경주지역 그리고 전라도의 지리산지역, 부여지역, 이렇게 몇 개의 지역을 서울에 온 외국인이 1박 2일 내지 2박 3일로 선택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해 가지고 ‘기왕에 닳새간 서울에 올 것 이틀을 더 갖고 와 가지고 이 지역을 가십시오’ 하는 것을 코스화시켜 가지고 일본에 가서 하토버스를 타면 가장 편리하게 하루 이틀에 에센스만 볼 수 있는 것처럼 관광공사 사장님하고 해서 한번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기념품도 지금 해인사 앞에서 사는 기념품이나 설악산에 가서 사는 기념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납품업체가 똑같으니까 똑같습니다. 이것을 변화시키면서……

또 하나는 막상 사려고 했을 때 고급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쓰러 왔는데 정말로 기념이 될 수 있는 고급품을 살 것이 없는 것은 저희 청의 문제가 아니고 디자인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개발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못하는데 초창기 개발을 한 것은 우리가 사주더라도 장기적으로 10만 원, 2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물품들을 개발시키는 작업도 아울러서, 최구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청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광공사하고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질의를 신청한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마는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이 의논하기로는 좀 빨리 끝마치려고 했으니까 너무 많이 끌지 않은 2분 정도로 해 주십시오.

○이계진 위원 원래 다 발언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몇 분만 한정되었는데, 존경하는 이재오 위원님께서 쓰다 남은 2분 31초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축하 분위기가 많고 그래서 결산심의가 부결될 염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축복경쟁인데 저도 경쟁에 뛰어들자면, 김대중 정부 이후가 아니라 해방 이후 제일 잘 된……

(웃음)

저를 찾아왔던 어느 젊은이가 청장님이 쓰신 책 중에 사과나무 가지를 태우면 파란 불꽃이 보인다는 걸 보고 해 봤더니 연기만 나더라, 항의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덜 마른 것을 뺏거나 불 피우는 기술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랬는데 간 후에 다시 안 온 것 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글이고 말이고 했던 말을 정확하게 하고 책임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려한 문장을 써도 거짓이면 의미가 없고, 아무리 말씀을 잘 하시고 전문가라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래의 위치에 있던 문화재가 그곳을 떠나서 서울에 와 있는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 경우 본체가 훼손되지 않는다는지 보존에 문제가 없다면 원래의 위치로 돌려주는 것이 그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로에 전화를 해 봤더니 모두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 법에 움직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 가운데 그것도 기현상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박물관 뜨락에 있는 탑이 서울에 있으나 그 지역에 가 있으나 비 맞기는 마찬가지로인데 왜 서울에 끌어 안고 ‘법 때문에’라고 보내지 않을까 답답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이계진 위원님의 지역구가 원주이기 때문에, 원주가 이것이 심각합니다. 부론면에 있는 지광국사 현모탑비라고 하는 것도……

○**이계진 위원** 잘 아시는군요. 국보 2점하고 보물 3점하고……

○**문화재청장 유홍준** 흥법사지에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계진 위원** 그런 경우에 원주뿐만 아니라, 법을 바꾸어서라도 제 위치에 갖다 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치 수집가의 집 마당에 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참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지금 장소를 옮겨 가지고 있는 것이, 일제시대 때 옮겨진 것은 일본인들이 반출하려고 했던 것을 총독부 관리가 뺏아서 지금 경복궁 뜰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이고, 경주에 있는 고선사 탑 같은 경우에는 보문 댐을 만드느라고 덕동호에 수몰되게 되어서 옮긴 것이기 때문에 2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반출하려다 찾아 놓은 것하고 수몰된 것인데, 일제시대 때 옮겨온 것의 원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장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계진 위원** 이번에 박물관을 이동할 때 하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지적한 것 중에 우리 문화재 보수에 문제가 적은 예산을 갖고 보수전문가가 적다 보니까 하나 고쳐 놓으면 몇 년 후에 고쳐놓은 것 다시 망가지게 되고

고치는 사이에 손 못 대는 것은 더 썩어서 더 고치기 어렵고, 그래서 한시적인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예산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이 덜 들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라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보수전문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있느냐 그런 것도 사실 문제인데, 전문가시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법을 만든다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재청장 유홍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연구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진 위원** 시간이 지나서 끝나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경**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 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 못지않게 문화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의 지킴이이자 알림이 역할을 해 오신 유홍준 교수님께서 문화재청장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몇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대가 굉장히 큼니다. 기대가 큰 이유는, 지금 문화재를 보면 문화재 보호만 있고 문화재 정책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우리 문화재에 대한 홍보라든가 연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이재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화재연구소의 경우는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문화재청의 연구예산, 실은 문화재청이야말로 연구를 가장 활발히 해야 될 곳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문화재를 현대적으로 외국에 많이 알리고 홍보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보니까 우리 문화재에 대한 홍보·교육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화재를 더욱더 많이 알리고 연구해 가지고 오래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의 정체성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연구능력과 연구기능을 확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의 우리 문화재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해외의 문화재에 대한 예산도 보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연구소를 연구원으로 확대하고 연구인력과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아까 청장님 말씀

하신 대로 어쨌든 문화재청의 지방인력을 확대해서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문화재청장 유흥준 1분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교육·홍보 그중에서도 해외홍보의 심각성은, 현재 영어로 쓰여진 한국미술사책 한 권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가 일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학계에서 나와야 되는 책임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발간할 것이 아니라 한국미술사학회, 한국고고학회, 역사학회에서 내야 됩니다. 또 그것을 내는 것도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내 가지고는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람스라든지 펠리칸 같은 데서 세계미술사 시리즈가 100권씩 나오는데 거기에 아트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랜덤하우스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을 찾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요구하고 있는 형식에 맞지 않고 연구역량이 모자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위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국립문화재연구소로서 해야 할 일, 여기 있는 보고서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충실히 하면서, 한편으로는 문화재연구소에 좋은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학계가 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직급이 3급입니다. 밑에 있는 직원은 4급입니다. 저하고 미술사학과 대학원 동기생들이 4급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바깥에서 커 갖고 청장이 되고, 평생 이 분야에서 살겠다는 사람은 4급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누가 공부를 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라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문화재청이나 이런 문화기관에서 전문가를 대접해 준다는 시범을 보여 줘야지 나라 전체가 커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미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재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또 차관청으로 된 이후에 첫 차관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두 인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만큼 기대가 커서 오늘 위원님들이 기대를 담아서 아주 더 많은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청장님 그리고 모든 임직원님들, 앞으로 문화재청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문화재 정책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하도록 하

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문화재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도중에 고흥길 위원, 심재철 위원, 이계진 위원, 이재웅 위원, 정종복 위원, 천영세 위원, 우상호 위원, 강혜숙 위원, 김재운 위원, 노용래 위원, 민병두 위원, 안민석 위원, 윤원호 위원, 정청래 위원, 이재오 위원, 이광철 위원, 박형준 위원, 이경숙 위원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 또는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질의하신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함께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재청 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재청 소관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청장과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정홍보처와 방송위원회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 등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出席委員(22人)

강혜숙	고흥길	김재운	김재홍
노용래	민병두	박형준	심재철
안민석	우상호	윤원호	이경숙
이계진	이광철	이미경	이재오
이재웅	정병국	정종복	정청래
천영세	최구식		

○請暇委員(1人)

손봉숙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김문희
전문위원	손준철

○政府側參席者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정	동	채
차	관	배	종	신
기획관리실장		유	진	룡
종무실장		이	보	경
문화정책국장		이	성	원
예술국장		위	옥	환
문화산업국장		곽	영	진
관광국장		김		찬
체육국장		조	용	남
청소년국장		조	현	재
공보관		이	세	섭
감사관		김	태	근

문 화 재 청

청	장	유	홍	준
차	장	이	승	규
기획관리관		이	춘	근
문화재청책국장		송	인	범
사적명승국장		김	중	혁
문화유산국장		김	창	준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김	봉	건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이	중	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이	동	식

○其他參席者

예술원사무국장	송	용	환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이	건	용
국립중앙박물관장	이	건	무
국립국어연구원장	남	기	심
국립중앙도서관장	임	병	수
국립중앙극장장	김	명	곤
국립현대미술관장	김	윤	수
국립국악원장	김	철	호
국립민속박물관장	김	홍	남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현	기	영
영화진흥위원장	이	충	직
예술의전당사장	김	용	배
한국관광공사사장	윤		건
대한체육회장	이	연	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	중	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	엄	삼	탁